

# 2023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3 K리그 기술보고서



# 2023 K LEAGUE TECHNICAL REPORT

올 시즌 40주년을 맞이한 K리그는 지난 해에 비해 모든 면에서 성장을 거듭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유료 관중 300만 돌파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K리그1에서는 평균관중 1만명 시대도 함께 열었습니다.

순위싸움 또한 치열했습니다. 울산이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자랑하며 K리그2 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였고, K리그2에서는 김천이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강등 1년 만에 K리그1에 복귀하였습니다.

K리그1 승격 1년 만에 아시아 무대에 진출한 광주와, 청단 2년만에 K리그2 3위를 차지하며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김포의 돌풍도 대단했습니다.

경기장을 찾는 축구팬이 늘어나는 만큼, 경기에 대한 분석과 해설도 과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로연맹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K리그의 경기 데이터와 전술·전략을 집대성한 총괄 분석보고서 ‘2023 K LEAGUE TECHNICAL REPORT’를 발간하였습니다.

테크니컬리포트에서는 2023년의 주요 지표 정리와 함께 득점, 세트 플레이, 역습, 압박, 빌드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 팀 별 전술적 특징과 강점, 약점을 분석했습니다. 주요 장면마다 자료 영상을 삽입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돋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23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선수단,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K리그 구성원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K리그에 대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축구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 K LEAGUE TECHNICAL REPORT’를 통해 더 흥미로운 K리그, 더 과학적인 K리그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CONTENTS

|       |                             |    |
|-------|-----------------------------|----|
| 용어정리  | BEPRO11 데이터 정의              | 02 |
| TSG   | 2023 K리그 TSG(기술연구그룹)        | 03 |
| <hr/> |                             |    |
| 01    | 2023 K LEAGUE OVERVIEW      | 04 |
|       | THE STORY OF K LEAGUE1 2023 | 06 |
|       | INTERVIEW   K리그1 우승감독 홍명보   | 18 |
|       | INTERVIEW   K리그2 우승감독 정정용   | 20 |
|       | TEAM OF THE YEAR            | 22 |
| <hr/> |                             |    |
| 02    | TALKING POINTS              | 28 |
|       | TOPIC 1   파일럿 A팀들의 확고한 플랜 A | 30 |
|       | TOPIC 2   K리그2에 나타난 대인 마크   | 31 |
|       | TOPIC 3   중앙 미드필더의 전술적 다양화  | 32 |
| <hr/> |                             |    |
| 03    | ANALYSIS                    | 34 |
|       | GOAL SCORING   득점 분석        | 36 |
|       | SET PLAYS   세트 플레이 분석       | 40 |
|       | COUNTERATTACK   역습 분석       | 42 |
|       | PRESSING   압박 분석            | 46 |
|       | BUILD UP   빌드업 분석           | 48 |
|       | GOALKEEPING   골키퍼 분석        | 52 |
| <hr/> |                             |    |
| 04    | TEAM PROFILES               | 54 |
|       | K리그1                        | 58 |
|       | K리그2                        | 70 |



- **xG(eXpected Goals)** | 기대득점. 특정 슈팅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 xG값은 슈팅 위치 및 각도, 연결된 패스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됨
- **xGOT(eXpected Goals on Target)** | 유효슈팅 내 기대득점. 유효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 xGOT값은 xG값과 슈팅이 골문 안으로 향한 위치(goal mouth location)에 의해 결정되며 계산과정에서 모든 슈팅 중 유효 슈팅만 포함됨
- **xT(eXpected Threat)** | 기대위협. 득점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공을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 공은 패스(pass), 드리블(dribble), 캐리(carry) 3가지 방법에 의해 전달될 수 있으며, 경기장을 구역별 (21x18)로 나누어 각 구역에 해당하는 득점 가능성을 부여하고, 공의 전달이 마무리되는 구역에서 공의 전달이 시작되는 구역의 득점 가능성 값을 뺀 값으로 산출됨
- **유효슈팅** | 골대 안으로 향하는 슈팅
- **블락된 슈팅** | 수비수한테 막혀 골라인을 지나가거나 도달하지 않는 슈팅
- **벗어난 슈팅** | 골대를 맞거나 골라인으로 나간 슈팅
- **돌파** | 공을 소유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제치는 시도
- **탈압박** | 공을 소유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압박을 벗어나 공 소유를 유지하는 행위
- **드리블** | 공을 소유한 선수가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동하는 행위
- **시퀀스** | 볼 소유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속적인 행위의 모음. 시퀀스 시작은 곧 볼 점유의 시작이며 상대의 수비, 슈팅, 볼 아웃 등 상황에 의해 종료됨
- **슈팅 시퀀스** | 슈팅으로 이어진 시퀀스
- **득점 시퀀스** | 득점으로 이어진 시퀀스
- **패스** | 공을 가진 선수가 동료 선수에게 의도를 가지고 소유권을 전달하려는 시도
- **키패스** | 슈팅으로 연결된 마지막 패스
- **공격지역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 하였을 때, 공격 지역에서 시작된 패스
- **중원지역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 하였을 때, 중원 지역에서 시작된 패스
- **수비지역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 하였을 때, 수비 지역에서 시작된 패스
- **장거리 패스** | 패스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패스
- **중거리 패스** | 패스의 거리가 1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패스
- **단거리 패스** | 패스의 거리가 15미터 미만인 패스
- **전진 패스** | 패스의 방향이 전방 60도 범위 내로 향한 패스
- **횡 패스** | 패스의 방향이 좌우 측면 120도 범위 내로 향한 패스
- **백 패스** | 패스의 방향이 후방 60도 범위 내로 향한 패스
- **크로스** |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한 횡적인 패스
- **PPDA(Passes Per Defensive Action)** | 전방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상대방 골라인으로부터 60% 지역 이내에서의 수비 시도 행위 당 상대방 패스 시도 횟수로 계산됨
- **공중볼 경합** | 어깨보다 높은 위치의 공을 소유하기 위한 도전
- **그라운드 경합** | 어깨보다 낮은 위치의 공을 소유하기 위한 도전
- **루즈볼 경합** |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공에 대한 도전
- **태클** | 상대가 소유한 공을 빼앗으려는 시도
- **차단** | 공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에게 태클을 시도하여 공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것
- **인터셉트** | 상대의 패스, 크로스, 슈팅의 경로를 수비하여 본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
- **블락** | 상대의 패스, 크로스, 슈팅의 경로를 수비하여 공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것
- **획득** |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공을 본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
- **클리어** | 수비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을 걷어내는 것
- **볼미스** | 공을 소유 중이거나, 소유하려고 할 때 실수로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것
- **캐칭** | 골키퍼가 슈팅을 막아내면서 공을 소유한 것
- **펀칭** | 골키퍼가 슈팅을 막아내면서 공을 소유하지 못한 것
- **공중볼 처리** |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 공에 도전하는 것
- **그라운드 처리** |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어깨보다 낮은 위치에 공에 도전하는 것

## 2023 K리그 TSG(기술연구그룹)

기술 위원장 | 박태하

영상 분석관 | 서현규

|     |   |
|-----|---|
| 차상광 | 現 U20 대표팀 GK코치<br>現 KFA 전임 지도자<br>前 도쿄 올림픽 대표팀 GK코치   |
| 이규준 | 現 장안대 감독<br>前 KFA 기술위원<br>前 장훈고 감독                    |
| 이평재 | 現 전남WFC 감독<br>前 광양제철고 감독<br>前 전남드래곤즈 스카우트             |
| 최문식 | 前 대전시티즌 감독<br>前 U23 대표팀 코치<br>前 U16 대표팀 감독            |
| 박건하 | 前 수원삼성 감독<br>前 A 대표팀 코치<br>前 렌던 올림픽 대표팀 코치            |
| 전경준 | 前 전남드래곤즈 감독<br>前 A 대표팀 코치<br>前 U23 대표팀 코치             |
| 김정수 | 現 KFA 전임 지도자<br>前 U20 대표팀 감독<br>前 U23 대표팀 코치          |
| 백영철 | 現 KFA 강사<br>前 서울이랜드FC 코치<br>前 현풍고 감독                  |
| 김태민 | 現 U20 대표팀 수석코치<br>前 베트남 A 대표팀 코치<br>前 호앙아인잘라이 코치      |
| 김용래 | 現 안산그리너스 유스디렉터<br>前 KFA 기술발전위원회 위원<br>前 호남대학교 축구학과 교수 |
| 김은중 | 現 U20 대표팀 감독<br>前 U23 대표팀 코치<br>前 AFC 튜비즈 코치          |

# 01

## 2023 K LEAGUE OVERVIEW

40주년을 맞은 2023 K리그1은 이야기거리가 가득했다. 승격팀 광주는 K리그1 3위를 기록하며 아시아로 가는 티켓을 얻는데 성공했다. 전북은 4위에 그치며 10년 만에 무관이었다. 2013년 이후 늘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나 올해엔 어느 곳에서도 정상에 서지 못했던 전북이다. K리그의 전통 명가 수원은 최하위로 강등 당했다. 선수였던 염기훈을 감독대행으로 끌어올리는 강수까지 뒤틀리거나 끝내 1부리그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K리그2에서는 김천이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강원과 수원FC가 각각 김포와 부산을 뿌리치고 생존을 신고했다.

2023 K리그1 최종 순위

| 순위 | 구단   | 경기수 | 승점 | 승  | 무  | 패  | 득점 |
|----|------|-----|----|----|----|----|----|
| 01 | 울산   | 38  | 76 | 23 | 7  | 8  | 63 |
| 02 | 포항   | 38  | 64 | 16 | 16 | 6  | 53 |
| 03 | 광주   | 38  | 59 | 16 | 11 | 11 | 47 |
| 04 | 전북   | 38  | 57 | 16 | 9  | 13 | 45 |
| 05 | 인천   | 38  | 56 | 14 | 14 | 10 | 46 |
| 06 | 대구   | 38  | 53 | 13 | 14 | 11 | 42 |
| 07 | 서울   | 38  | 55 | 14 | 13 | 11 | 63 |
| 08 | 대전   | 38  | 51 | 12 | 15 | 11 | 56 |
| 09 | 제주   | 38  | 41 | 10 | 11 | 17 | 43 |
| 10 | 강원   | 38  | 34 | 6  | 16 | 16 | 30 |
| 11 | 수원FC | 38  | 33 | 8  | 9  | 21 | 44 |
| 12 | 수원   | 38  | 33 | 8  | 9  | 21 | 35 |

2023 K리그2 최종 순위

| 순위 | 팀명   | 경기수 | 승점 | 승  | 무  | 패  | 득점 |
|----|------|-----|----|----|----|----|----|
| 01 | 김천   | 36  | 71 | 22 | 5  | 9  | 71 |
| 02 | 부산   | 36  | 70 | 20 | 10 | 6  | 50 |
| 03 | 김포   | 37  | 60 | 17 | 12 | 8  | 42 |
| 04 | 경남   | 38  | 57 | 15 | 13 | 10 | 55 |
| 05 | 부천   | 37  | 57 | 16 | 10 | 11 | 45 |
| 06 | 안양   | 36  | 54 | 15 | 9  | 12 | 58 |
| 07 | 전남   | 36  | 53 | 16 | 5  | 15 | 55 |
| 08 | 충북청주 | 36  | 52 | 13 | 13 | 10 | 37 |
| 09 | 성남   | 36  | 44 | 11 | 11 | 14 | 43 |
| 10 | 충남아산 | 36  | 42 | 12 | 6  | 18 | 39 |
| 11 | 서울E  | 36  | 35 | 10 | 5  | 21 | 36 |
| 12 | 안산   | 36  | 25 | 6  | 7  | 23 | 40 |
| 13 | 천안   | 36  | 25 | 5  | 10 | 21 | 33 |

2-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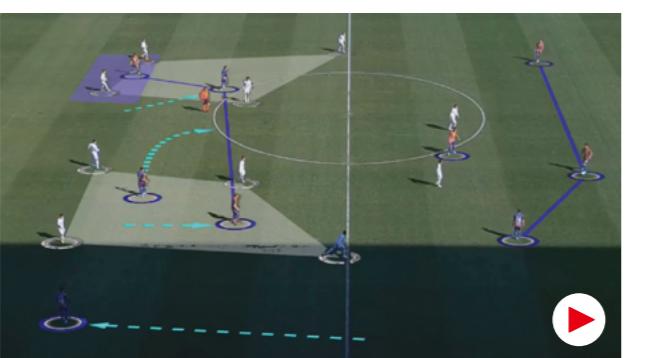
## 질주하는 울산, 간결해진 서울

울산은 시즌 초부터 압도적이었다. 2~3월간 펼쳐진 리그 첫 4경기에 서 전승을 거두며 1위 자리에 올랐다. 원동력은 '수비'였다. 4경기에서 단 2실점만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부터 발 맞춰온 설영우-김영권-정승현-김태환 라인이 견고한 수비 조직을 보였다.

공격에서는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울산이다. 항상 '상대 수비를 놀라 주는 선수'와 '그 밑에서 공간을 얻는 선수'를 구분했다. 엄원상을 제외 한 모든 선수들이 두 가지 임무를 유연하게 수행하며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줬다. 주민규·루빅손·바코·아타루 등 다재다능한 선수들의 역량이 심분 발휘됐다.

선두 울산의 바로 뒤엔 서울이 달렸다. 서울은 3라운드 울산전을 제외 한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며 2위에 올랐다. 핵심은 '실리'였다. 2022년 엔 점유에 중점을 뒀다면 2023년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실리에도 눈을 들었다. 올해 초의 점유율을 놓고 비교해 봐도 차이가 확인된다. 서울은 2022년엔 61.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23년은 44.7%였다.

한층 간결해진 플레이도 서울의 장점이었다. 서울은 시퀀스당 패스 횟수 / 소요 시간 / 다이렉트 스피드 등 지표에서 더욱 담백해졌다. 4-4-2 대형으로 튼실한 수비를 구축하다가 측면의 스피드를 활용해 진군하는 게 주요 패턴이었다. 중앙에서 9번 공격수가 볼을 지켜준다면 측면 자원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허를 찌르는 방법론이었다. 2023년 초의 서울은 근래 어느 때보다도 매서웠고 또한 화려했다.



울산의 시즌 초 공격 형태. 전방에 위치한 선수들이 주어진 임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했다.



### 울산 주요 지표 1-6R

득점

**8**골 1위

공격진영 패스

**371**회 1위

크로스

**19**회 2위

### 서울 주요 지표 1-6R

수비진영패스

**500**회 1위

클리어링

**212**회 2위

블락

**113**회 1위



4월

## 포항과 수원, 강행군 속 엇갈린 희비

K리그1의 4월은 분주했다. 4월 한 달에만 6경기가 펼쳐졌다. 모든 팀들에 숨 가쁜 일정이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봄도 가장 많은 경기가 열린 달이 4월이었다.

강행군 속 성적을 낸 팀 중 한 곳은 포항이었다. 3승 2무 1패의 전적을 거두며 울산 다음으로 많은 승점을 벌었다. 포항은 시즌 첫 9경기까지 무패를 달리다 10라운드 인천전에서 첫 패배를 겪었다. 포항은 4월이 끝나가는 시점 2위 서울과 동일하게 승점 19점을 기록했다.

김기동 포항 감독의 대응 전술은 눈부셨다. 5라운드 전북전에서는 경기 초반 강한 압박을 위해 미드필더 이승모를 최전방에 기용했다. 그러면서도 정재희·조재훈·김승대 등의 자원으로 상대 배후 공간을 공략했다. 6라운드 광주전에서는 상대의 유기적인 공격을 제어하기 위해 대인 마크 수비도 가동했다. 동시에 공격 시에는 타깃맨 제카를 측면에 배치하는 변주도 선보였다. 광주의 풀백 이민기와 두현석의 신장이 작다는 점을 공략하는 노림수였다

한편 수원은 최악의 출발이었다. 4월까지 치른 10경기에서 2무 8패에 그쳤다. 순위는 최하위였다. 수원은 4월까지 승리를 따내지 못한 유일한 팀으로 기록됐다. 11위 강원과의 승점 차이도 8점이었다. 둘다 봄도 전례 없는 최악의 출발이었다.

수원의 주요한 문제는 디펜스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 지역으로 계속 상대의 볼 투입을 허용한다는 점이었다. 중원에 위치한 김보경·유제호·바사니 등 미드필더들의 수비력이 좋지 못했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이종성 역시 품이 애매했다. 라인 사이로 볼이 자꾸 들어오는 현상은 수원 백 포의 속도전 이슈로 직결됐다. 상대는 수원의 수비 라인과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을 빈번하게 맞았고, 이내 어렵지 않게 배후로 공격을 감행했다. 수원에선 이기제·볼투이스가 위치한 왼쪽에서 주력 문제를 노출했다.



**포항 주요 지표**  
**5-10R**

**차단**  
**132회 1위**

**경합(지상)**  
**43회 2위**

**중거리 패스**  
**1,001회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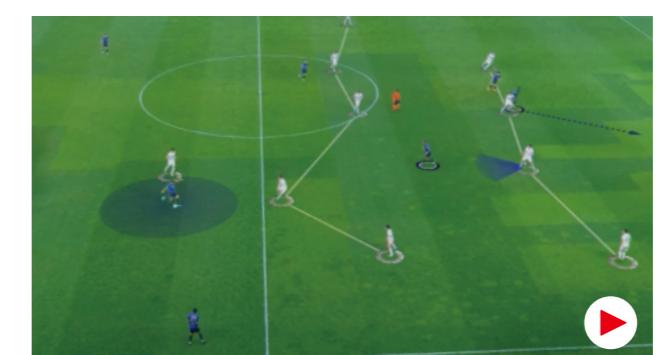


**수원 주요 지표**  
**5-10R**

**득점**  
**5골 11위**

**블락된 슛**  
**18골 1위**

**클리어링**  
**191회 12위**



수원은 디펜스-미드필더 라인 사이 지역으로 볼 투입을 허용하며 배후 공간 문제를 노출했다.

5월

## 늦은 봄에 쓰인 반전

5월이 되자 제주의 상승세가 눈에 들어왔다. 제주는 시즌 첫 5경기서 단 한 번의 승리도 따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후 10경기에서 8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4월 초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이 시기의 제주는 10위에서 3위까지 점프했다.

그때의 제주에선 남기일 감독의 백 스리가 위협적으로 가동됐다. 핵심은 윙백 안현범이었다. 제주는 안현범의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 중 3-4-3과 3-5-2를 훈용했다. 대개 오른쪽 윙어가 미드필더 진영으로 내려오는 형태였는데, 제주의 윙어가 중원으로 이동하면 자연스레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고 나왔다. 이때 안현범의 오버래핑 루트가 마련되곤 했다. 제주는 견고한 백 스리와 안현범의 공격력으로 늦은 봄의 드라마를 완성했다.

한편 최하위권에서는 수원과 강원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됐다. 최악의 출발을 보인 수원은 5월에 김병수 감독을 선임했다. 2023시즌 K리그1에서 가장 빠른 감독 교체였다. 김병수 감독은 수원이 11라운드 인천전에서 시즌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본격적으로 지휘봉을 잡았다.

강원은 누구보다 암울한 5월을 보냈다. 5월 5경기서 1무 4패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원과 격차가 좁혀졌다.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이었다. 강원은 한 달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공격진 전부가 품이 저하된 것처럼 보였다. 김대원·양현준의 파괴력은 2023년에 비해 급감했으며, 공격수 디노는 타깃맨으로서 제 기능을 못했다. 역습을 중시하는 최용수 감독의 전술에서 공격진의 품이 떨어지니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다.



제주는 윙어의 움직임을 통해 윙백의 오버래핑 루트를 마련했다.



제주 주요 지표  
11-15R

득점

**12** 골 2위

실점

**3** 골 11위

인터셉트

**170** 회 2위



강원 주요 지표  
11-15R

득점

**0** 골 12위

슛

**42** 회 11위

유효 슛

**7** 골 12위





6-7월

## 페트레스쿠 시대 진입한 전북, 비상하는 인천



전북 주요 지표  
**16-24R**

박스 안 슛  
**74** 골 2위

경합(공중)  
**234** 회 2위

블락  
**178** 회 1위



인천 주요 지표  
**16-24R**

실점  
**6** 골 1위

인터셉트  
**287** 회 2위

드리블  
**27** 회 2위

이맘때의 전북은 바빴다. 5월엔 김상식 감독이 팀을 떠났고 그 자리를 김두현 감독대행이 메웠다. 김두현 대행의 전북은 11라운드 서울전부터 등장했다. 이전의 전북은 3-4-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했으나 김두현 대행 체제에선 백 포로 변환했다.

김두현 대행의 변칙은 계속됐다. 5일 뒤 펼쳐진 수원전에서는 ‘맹성웅 시프트’를 가동했다. 맹성웅을 왼쪽 풀백으로 배치하되 공격 시에는 미드필더 자리로 옮겨 중원에 힘을 실어주는 전술이었다. 전북은 열흘 뒤의 수원FC전에서는 풀백 위치에 김진수와 김문환을 배치하며 측면을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했다.

단 페트레스쿠 감독 체제의 전북은 6월 말 킥오프했다. 단 페트레스쿠 감독은 19라운드 광주전을 시작으로 전북의 7대 사령탑이 됐다. 단 페트레스쿠 감독은 선 굵은 4-4-2 축구를 애용했다. 최전방에 조규성·구스타보와 같은 타깃맨을 중심으로 발 빠른 선수들을 적극 기용했다. 후방에서 오래도록 볼을 소유하기보다는 전방으로 최대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게 핵심이었다.

한편 시즌 초 부침을 겪었던 인천은 7월을 기점으로 성적을 냈다. 반등 요인은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했다. 시즌 초의 인천은 중원의 이명주·신진호를 중심으로 볼을 점유하는 경기를 추구했다. 그러나 좀처럼 상대 밀집 수비를 깨지 못했다. 비효율적 공격이 계속됐다. 인천이 맞지 않은 옷을 입었던 것이었다.

인천 용감하게 변화를 택했다. 7월을 기점으로 보다 간결하게 공격했다. 일단 김도혁을 다시 중앙 미드필더로 주입했다. 중원의 김도혁은 침투로 상대 빈 공간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공격이 심풀해지니 빠른 발의 제르소·에르난데스와도 시너지를 냈다. 인천은 상황에 따라서 천성훈·무고사 카드를 꺼내 볼을 지키는 옵션도 발동했다. 3-4-3과 3-5-2까지 슬기롭게 오간 인천은 마침내 여름에 비상했다.



김두현 감독대행은 12R 수원전에서 맹성웅을 변칙적으로 활용했다.

8-9월

## 거인이 된 광주, 파이널 A 진격 대구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8월. 승격팀 광주는 다시금 상승세에 탑승했다. 광주는 이 시점부터 경기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어갔다. 5경기 1승에 그쳤던 7월 광주의 고민은 득점이었다. 높은 점유율을 토대로 게임을 주도했으나 골은 쉽사리 터지지 않았다. 이정호 광주 감독의 복장이 터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8월이 되자 최전방 공격수 이건희·허율의 발끝이 매서워졌다.

9월의 광주는 실리를 추구하며 승리를 따냈다. 29라운드 울산전과 30라운드 서울전이 대표적이었다. 이번 시즌 집계된 광주의 최저 점유율 두 경기다. 광주는 이 두 경기에서 모두 4-4-2 기반의 꽉 짜인 수비 진용을 구성했다. 공간을 틀어막으며 항상 1선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 전술을 채택했다. 단순히 내려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압박해 상대 후방 빌드업을 방해했다.

대구는 9월에 3승 1무를 기록했다. 파이널 라운드 A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에이스 세징야가 없는 상황에서 호성적을 일궜다는 점이다. 기량이 올라온 바셀루스가 큰 도움이 됐다. 바셀루스는 세징야 빠진 대구에서 솔로 플레이 옵션을 충실히 제공했다. 대구의 공격 상황. 바셀루스는 측면으로 넓게 벌려 서 상대 수비와 일대일 대결을 즐겼다.

바셀루스가 용감하게 싸우니 바셀루스-에드가-고재현의 스리 텁도 파괴력을 냈다. 상대가 측면의 바셀루스에게 끌려가니 에드가와 고재현이 공간을 확보했다. 공간을 만난 에드가와 고재현은 몰 만난 물고기처럼 펼떡였다. 부분 전술도 훌륭했던 대구다. 중앙 미드필더가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플레이가 잦았다. 모든 게 맞아떨어진 대구는 9월 성적을 토대로 파이널 라운드 A에 입성했다.



9월의 광주는 실리적 운영으로 승점을 따내기도 했다.

광주 주요 지표  
25-31R

점유율  
**59.7%**

득점  
**13**점 1위

실점  
**4**점 12위



대구 주요 지표  
25-31R

실점  
**5**점 11위

경합(지상)  
**59**회 1위

블락  
**151**회 1위





10-12월

## 대장정의 끝. 2연패의 울산과 내려가는 수원

2023 K리그1은 10월 중순부터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했다. 10월에 6~7위에 위치하던 전북과 서울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전북이 서울 원정에서 0~2 승리를 따내며 극적으로 파이널 라운드 A 진출을 이뤘다.

1위 울산은 35라운드 대구전에서 우승을 결정했다. 시즌 초 압도적 페이스를 보였으나 후반기엔 적잖이 흔들리기도 했던 울산이다. 여름에 이탈한 훌딩 미드필더 박용우의 부재도 컸다. 그래서인지 울산은 8~10월간 펼쳐진 11경기에서 단 3승에 그쳤다. 하지만 울산은 울산이었다. 숱한 위기를 겪고도 끝내 왕좌를 지켜냈다.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답을 찾아냈던 챔피언이었다.

수원FC는 시즌 후반 극심한 부진으로 11위까지 추락했다. 마지막 9경기서 4무 5패라는 최악의 행보를 보였다. 문제는 역시 수비였다. 개선을 위해 포메이션도 바꿔보고 조합도 달리 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시즌 내내 골키퍼 부진도 계속됐다. 박배종과 노동건이 돌아가며 골문을 지켰으나 그 누구도 주전이 되지 못했다.

이번 시즌 수원FC는 76골을 내줬다. K리그1 역대 최다 실점팀으로 남았다. 종전 최다 실점 기록이었던 2012년의 상주(現 김천)보다 2골을 더 내줬다. 사실 2012년은 K리그1이 44경기 체제였다. 상주는 시즌 말 몰수때까지 겼었다. 즉, 수원FC가 역사에 기록될 만큼 많은 실점을 기록했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수원FC는 부산과의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만큼은 어떻게든 웃었다. 한창 잘 될 때의 리드미컬한 공격을 발휘해냈다.

최하위 수원은 다이렉트 강등 수모를 겼었다. 9월 말 염기훈 감독대행이 성적을 내긴 했으나 강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이었던 경기는 시즌 최종전인 38라운드 강원전이었다. 수원은 경기 내내 강원의 폭 넓은 공격에 휘둘렸다. 주전 미드필더 이종성이 결장한 중원에도 안정성이 결여됐다. 결국 수원은 강원전에서 0~0 무승부에 그쳤다. 결과는 구단 창단 최초 강등이었다.



**수원FC 주요 지표**  
**33-38R**

실점

**13** 골 1위

테클

**40** 회 11위

차단

**108** 회 10위

# ‘호랑이 왕조’ 건설 초읽기

## 홍명보와 돌아본 2023 울산

울산이 K리그1 2연패를 달성했다. 호랑이 힘이 불끈 솟아나 이젠 왕조의 시대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대업을 이룬 울산의 비결을 탐색하기 위해 ‘설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 울산의 리더 홍명보 감독은 2023년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2024년을 위해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테크니컬 리포트인 만큼 전술 이야기 한 가득 담았다.



### 2023 울산은 2022 울산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백 스리를 쓴 경기가 몇 번 있어요. 2022년과 2023년이 전술 기조가 큰 변화는 없지만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다는 게 차이입니다. 전북전에서는 변형 백 스리, 포항전에서는 전통 백 스리에 가까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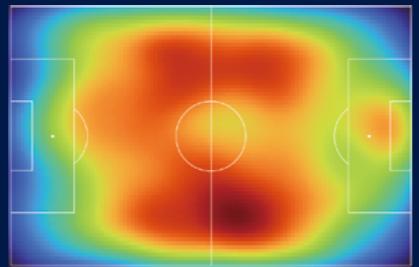
### 수비 시에는 4-4-2 포메이션을 애용합니다. 이것이 울산 공격 철학에 가장 어울리는 포진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백 스리 형태에서 수비를 하게 되면 뛰는 양이 많아집니다. 수비를 지향한다는 이미지까지 생기죠. 백 포가 우리에게는 가장 편안한 옷입니다. 그 편안한 옷을 지금까지 입혀줬습니다.”

### 2023시즌 K리그1 클럽이 ‘상대로부터 볼을 뺏은 지역’을 나타낸 히트맵을 가져왔어요. 울산 거는 이렇게 생겼네요.

“우리는 전방에서 볼을 빼앗는 숫자가 많아요. 예를 들어 대구 같은 팀은 빨강이 더 뒤에 많겠네요. 우리는 볼 뺏는 위치를 2년 전부터

높게 잡았어요. 홈과 어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방 압박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팀은 어웨이에서 내려설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어디서든 프레싱을 가했어요.”



### 울산의 데이터 중에 흥미로운 점은 평균 연령 29.1세. K리그1 최고령 클럽이더라고요.

“우리팀에서 베테랑들의 역할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점유율 1위, 공격 지역 점유율도 1위, 미드필더 지역 점유율도 1위, 수비 지역 점유율 2위였습니다. 정말 어떤 지역에서는 꾸준하게 볼을 소유했던 2023 울산이었습니다.

“점유율, 그걸 꾸준하게 추구했어요. 처음 울

산에 부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쪽. 그래서 경기를 주도하는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병폐도 있습니다. 찬스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는 단점이 발생해요. 숫도 때리고 해야 하는데 그럴 지역에서 조차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도 파이널 라운드 A 막판엔 나아졌던 듯합니다.”

### 전반전(24)에 비해 후반전(39) 특점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게 분석이 가능한 수치일까요?

“가능해요. 우리 스타일상 선제 실점을 당하는 경기가 제법 있었어요. 그러나 보니까 후반에는 더욱 공격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든 득점을 해내야 합니다. 더욱 공격을 해야 이기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런 숫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2023시즌 중 박스 바깥에서 8골이었습니다. 감독님이 봤을 때 많은 수치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좀 적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타팀도 적어서 또 우리가 마냥 적은 편도 아닙니다. (요즘 축구는 중거리슛이 과거에 비해서는 나을 확률이 적은 걸까요?) 아무래도 하프스페이스를 적극 활용하니까 예전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해요.”

니다. (요즘 축구는 중거리슛이 과거에 비해서는 나을 확률이 적은 걸까요?) 아무래도 하프스페이스를 적극 활용하니까 예전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해요.”

**홀딩 미드필더 박용우의 이탈은 감독님에게 어떤 고민을 안겨줬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선수들에게 박용우 를 맡겨보기도 했습니다.**  
“김민혁·이청용·이동경·이규성·김성준 등은 그 포지션엔 둘 수 있는데 박용우와는 스타일이 달라요. 박용우는 수비에서 웃은일을 도맡는 타입이거든요. 때문에 박용우 미션을 줬을 때 다른 선수들이 어려움은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조금씩 괜찮아지긴 했어요. 물론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축구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임무가 웅시 중요합니다. 박용우 스타일이 있어야 나머지가 더 공격적으로 게임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미드필더가 이젠 필요하겠네요.”

**2023년 동계 전지훈련 때부터 공격하는 백 스리 전술을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엔 그게 많이 드러나진 않은 거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선수들은 백 포에 익숙해요. 백 스리로 했을 때 선수들의 머리가 딱딱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백 스리에선 수비수들의 동선이 달라집니다. 어렵기도 하고 충분한 연습도 필요해요. 그러니 경기장에 곧바로 전형을 밀어 넣진 않아요.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있는 경기에 목표를 두고 선수들을 준비시킵니다.”

**시즌 중 포항과 대결할 때는 클래식 백 스리에 가까웠어요. 공격 기조의 울산이 다른 판단을 내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무렵 우리 선수들 품이 안 좋았어요. 반면 포항은 정말 좋았습니다. 기억해요. 포항은 5승 5무인 상태였고 우리는 3승 3무 4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를 우리가 그대로 붙어버리면 질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전술에 변칙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겼네요. 그때 얻은 승점 1점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거 같아요.”

시즌 끝으로 가는 시점에서 무척 중요한 경기였어요. 내용보다는 결과가 중요했어요.”

### 마틴 아담과 주민규가 꾸리는 울산의 플랜 B는 어떤가요?

“주민규와 마틴 아담이 최고의 후반전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플랜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전반전엔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압도하긴 힘들거든요. 전반전엔 상대도 막아낼 힘이 있어요. 상대가 우리의 후반 전술을 예측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결국 어느 팀이나 같거든요. 상대 명단을 보면 ‘이 시간엔 저 선수가 나오겠군’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서브들은 들어갔을 때마다 잘해줬던 거 같아요.”

**플랜 A와 B가 공존했던 시즌이었습니다. 2024년엔 플랜 C와 D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플랜 A의 등장?**

“그럼요. A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백 포든, 백 스리든, 미드필더의 대형이든, 조금은 새롭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요.”

### 2024년을 준비하기엔 많이 괴로울 거 같슴니다. 적잖은 선수들이 올겨울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될 확률이 높잖아요.

**2024년 2월엔 2023-2024 AFC 챔피언스리그 16강전도 예정됐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커요. 몇 명이 아시안컵에 출전할지 모르겠는데, 그 선수들이 시즌 종료 후 휴식 없이 떠나야 합니다. 사실 등계 전지훈련은 선수들이 그때까지 피곤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느냐에 달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럴 수가 없죠. 피지컬코치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감독님이 선수 생활을 하던 수십 년 전과 지금의 축구에서 전술이 갖는 의미는 달라진 거 같기도 합니다. 2023년의 축구에서 전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술이 진화한다는 걸 느낍니다. 갈수록 좀 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선수 시절엔 리베로를 둔 백 스리 전술이 많았는

데 요새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요즘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더 나아질 수 있다 고 생각해요. (리베로를 쓰는 전술이 현대에도 맞을까요?) 거기에 맞는 선수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술에 적합한 선수를 찾는 게 먼저겠네요.”

### 과거와 현대를 비교했을 때 지도자들의 전술 디테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전보다 많이 디테일해졌어요. 그리고 선수들의 이해 능력도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전술보다 피지컬을 우선하는 느낌이 짙었는데 요새는 달라졌어요. 발전했어요. (과거엔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다는 개념이 있었나요?) 많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글쎄. 아예 없었다고 말하기 보다는 ‘저 지역으로 침투해’ 정도? 하프스페이스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예전이었죠. 그 지역으로 움직이라는 요청은 분명 있었지만 지금만큼 디테일한 주문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 그렇다면 이제는 익숙해진 하프스페이스라는 지역. 그곳은 현대 축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공격 시에도, 수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 자리로 공격을 시도해야 수비가 끌려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비가 끌려나오면 그때 공간이 생기겠죠? 그때부터입니다. 그거예요.”

### 마지막 질문입니다. K리그1 12개 클럽이 사령탑들의 지략 대결로 풍성한 시즌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의 수준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을까요?

“각 팀마다 굉장히 색깔 있는 전술들을 갖췄어요. 지도자들이 각자의 색깔을 잘 입혀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전술이 충돌하고 있어요. 2023시즌 K리그1에서는 각 팀마다 팀에 맞는 전술을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비해서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의 무더운 날씨로 여름엔 경기력이 안 좋을 때가 있지만, 그 시기를 빼놓고는 우리도 충분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 김천 '1강 공식' 성립시킨 정정용 '맞춤 매니지먼트'

2023시즌만큼은 힘들어 보였다. 김천은 초반에 예상보다 주춤했다. K리그2 다른 클럽들의 기세도 만만찮았다. 하지만 정정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모든 게 변했다. 그는 자신보다는 '타인', 즉 선수들의 관점에서 출발하며 게임을 뒤흔들었다. 결과는 드라마틱한 역전 우승. K리그2 챔피언 정정용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



### 가벼운 질문부터! 2023시즌 우승 소감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우승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부산이 그럴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시즌 종료하자마자 훈련소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금세 헤어졌어요. 결국 우승의 감정을 우리끼리 많이 나눠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들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거든요."

### 그래도 역전 우승은 대단했습니다. 부임 당시엔 챔피언이 가능하다고 봤나요?

"다들 1강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건 아니었어요. 김천에 왔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현실적 목표로 잡았죠. 스쿼드의 불균형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어요."

### TSG의 분석에 의하면 강현욱의 위치에 따라 김천의 포지셔닝이 달랐다고 하네요.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2부리그는 직선적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

### 들 데리고서는 빌드업을 하며 유기적으로 게임을 풀어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상대 미드필더 숫자에 맞춰 강현욱을 이리저리 이동시켰던 거예요. 사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맞아갔고, 결국엔 강현욱과 조영욱의 케미스트리까지 만들어지게 됐죠. 조영욱이 연속 득점을 할 때 강현욱의 역할이 굉장했답니다."

### 공격 지원은 그래도 다양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감독님은 공격 스쿼드의 색깔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합니다.

"타깃맨의 경우에는 이영준이었는데 아직

때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조영욱도 평범한 유형은 아니었고요. 결국 윙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내려와서 받고, 공간으로 나아가고, 윙어 자원들은 있으니 거기에 '인버티드 형식'을 입혀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요즘 트렌드가 안쪽으로 진입해 반대발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선수들에게 내 색깔을 입히는 게 아니라 있는 선수들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끄집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김천이 2023시즌 중 스탯상으로는 평범했던 듯도 합니다.

"2023시즌만큼은 팀에 약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멘탈 관리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김천에 오는 친구들은 분명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끔 도우면 된다고 봤어요. 김천에서는 동기부여가 일반 팀보다는 적은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10년가량 몸을 담으며 느낀 점은, 선수들에게 원기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어요."

### 감독님의 전술가 이미지와 달리 막상 이야기를 들으니 이번 시즌은 '멘탈'에 초점을 맞춘 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었어요. 김천은 열심히 뛰지 않는다. 몸싸움도 안 한다. 파워풀하지 않다. 그걸 바꾸고 싶었습니다. 선수들에게 말했어요. 선수는 신발 끈을 묶는 순간 훈련이든, 경기든 무조건 100%로 가야 한다. 그래야 발전하고, 그래야 훗날 국가대표도

될 수 있다. 기술 훈련을 하면서도 옆에서 자주 조언을 했던 1번은 결국 멘탈이었어요. 멘탈이 돼야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도 주입할 수 있습니다."

### 김천 득점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조영욱이 제대할 때 고심이 커질 거 같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으로 극복했습니다. 선수들의 장점을 더욱 열심히 찾았고, 그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게끔 했어요. 김현욱을 반대로 돌리거나, 이준석의 스피드를 이용하거나, 부족한 수비력은 조언으로 바꾸거나 등. 서로 돋고, 이야기하고, 발전하고, 그런 게 모두의 자신감으로 연결 돼서 극복했습니다."

### TSG 분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천은 로테이션을 하는 와중에도 수비 조직력이 좋았다는,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서울 이랜드에서도 그렇고, FIFA U-20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수비만큼은 자신 있게 했습니다. 백 포든, 백 스리든, 선수들과 미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조율해요. 김천은 실점은 좀 있었어요. 선수단 특성상 처음엔 수비할 때 간절함도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도 후반기에 들어서는 수비력에 있어서도 개선이 됐다고 봤습니다. 훈련 때 100%를 해라, 이 말을 반복했어요."

### 이제 2024년엔 K리그1입니다. 김천이 K리그2와 K리그1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감독으로서 저도 처음 경험하는 시스템의 팀입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 선수들도 훈련소에 있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또 훈련소에 가야하고, 2월은 돼야 선수단이 제법 모일 거 같은데 시간이 축박해요. 조직력 형성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설레요. 후반기에 봤던 선수들의 자세, 그리고 변화를 통한 성적이 기억에 남거든요. 우리 조직의 스타일을 확립하면 새로운 선수가 와도 바뀌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

보다도 우리 선수들, 그간 K리그에서 최선을 다해 뛴 선수들이잖아요. 믿어요. 일단 3~5월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때가 조직력이 애매할 시기인데 잘 끌고 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 K리그1에서는 김천의 전술 콘셉트가 어떨까요?

"일단 선수들이 좀 돌아와야 알 수 있을 거 같아요(웃음). 가까이서 봐야 선수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수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비만 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되든, 안 되든, 공이 상대 진영에서 놀게 할 겁니다. (울산이나 광주 같은 팀과 붙으면 어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도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그렇게 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컨디션을 회복하고, 조직력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데만 몰두하겠습니다."

### 요즘 K리그는 지도자들의 역량이 세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감독님들 연봉을 한번 보세요(웃음).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연구해야 해요. 다만 우리에게 맞는 전술도 입혀야겠죠. 이젠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2023시즌 K리그의 흥행도 거기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K리그1은 아시아 텁 클래스입니다. 한국 선수는 유럽에도 많이 나가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선수도 배우고, 지도자도 배우고, 앞으로도 발전할 여지가 많아요. 한국 축구는 좋아질 겁니다."

### 감독님은 전술이라는 분야에서 요새 어떤 생각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나요?

"전술 분야의 생각이나 고민이라… 전술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맞아떨어지면 잘하는 전술이고 용병술이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될 때도 분명 있어요. 요새 느끼는 거는 선수들에게 맞는 옷을 입히는 게 가

장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잘 하는 지도자'인 거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양한 곳에서 지도자 직무를 경험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도 해보고, 2부리그도 해보고, 나이 어린 선수들과도 시간을 보냈고, 지금 김천처럼 스페셜한 팀도 경험하고 있어요. 거기서 느낀 공통점은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맞는 가능성들을 빠르게 찾아가는 거,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압축해 우리 조직력을 만드는 일. 그런 생각과 고민이 요새 많은 거 같아요."

### 축구에서 전술보다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술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멘탈일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욕. 그런 멘탈을 가진 선수가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고 전술과 합쳐져야 시너지가 나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참 특별한 클럽 김천에서 감독님이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

"김태완 감독도 그랬어요. 김천은 리스크가 참 큰 팀이라고. 저는 그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요. 선수 풀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거처럼 다들 K리그에서 잘하던 선수들이니까. 선수들의 환경에 맞춰서 어울리는 옷을 입히는 게 급선무입니다. 전술은 자연스럽게 뒤따라가겠죠. 흥미로워요. 설레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합니다."



MVP

## 김영권

“여기서 멈추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시작’이다.”

울산의 센터백 김영권이 2023시즌 K리그1 최우수선수로 등극했다. 투표도 압도적이었다.

감독·주장·미디어가 선택하는 최우수선수에서 투표군별로 고른 선택을 받았다.

김영권은 2023시즌 중 이적설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울산에 남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길을 택했다.

그 결과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넘어

선수로서 김영권의 가치는 여전히 K리그1 최고 수준이다.



조현우  
13 클린시트



완델손  
7.09 평점

이젠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다. 베스트 11 골키퍼 부문은 조현우의 전유물 같다. 하지만 지루해도 어쩔 수 없다. 조현우는 초월하는 수문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조현우는 2023시즌 13회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K리그1 골키퍼 중 '으뜸'이었다.



그랜트  
169회 인터셉트

맥을 잘 끊었다. 169회나 인터셉트를 기록해 이 부문에서 K리그1 센터백 중 2위를 기록했다. 다방면에서 좋은 역량을 선보이는 그랜트는 2023시즌 ‘기본’에서 특히 빛을 냈다. 수비수의 최대 덕목은 상대를 막아내는 것이다.



설영우  
24회 슈팅

고속 성장하는 측면 수비수. 좌우를 가리지 않고 소화하는 팔방미인이다. 2023년엔 공격력도 성장했는데 K리그1 모든 측면 수비수들 중 최다 득점(3)과 최다 유효슛(9)을 기록했다. 2024년이 더 궁금한 플레이어이다.



오베르단  
15회 공격지역 인터셉트

‘영일만 지우개.’ 포항이 건져 올린 보물이었다. 기본에 충실하며 빛을 냈다. 뛰고, 또 뛰어서 상대를 지치고 질리게 만들었다. 모든 K리거를 통틀어 공격지역 최다 인터셉트(15)를 기록한 게 오베르단의 가치를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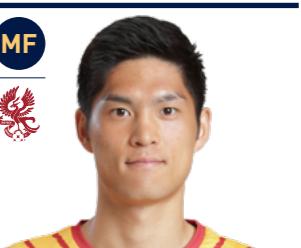
제르소  
32회 드리블 성공

인천의 공격 첨병이자 K리그1 최고의 드리블러. 2023시즌엔 32회나 드리블로 상대를 지나쳤는데 K리그1 전체를 통틀어 최다였다. 2위 이희균(23)과 큰 차이가 있었을 만큼 ‘개인 역량’에 있어선 독보적이었던 제르소다.



김영권  
940회 중앙지역 전진패스

940회의 중앙 지역 전진 패스. K리그1 모든 선수를 통틀어 1위 기록이었다. 울산에서 김영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지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착실한 후방 빌드업을 추구하는 울산에서 김영권은 ‘시작점’이다.



이순민  
134회 수비지역 전진패스

포지션 표기상 미드필더이나, 사실상 MF와 DF 전 포지션을 소화한 괴물이다. 이정호 광주 감독의 지도 아래 필드 전 지역을 커버하는 선수로 성장했다. 패싱력도 일품이다. K리그1 미드필더들 중 수비 지역 전진 패스 1위.



제카  
39회 키 패스

연계에 있어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였다. 최전방에서 39번이나 키 패스를 성공시켰는데, 이건 K리그1 모든 공격수 중 최고 기록이었다. 이타적 공격수의 교과서였던 제카는 포항의 최전방에서 상대에게 압박감을 선사했다.

# MVP 발디비아

K리그2 2023시즌 최우수선수는 누구나 예측 가능했다. 발디비아라는 괴물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전남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발디비아는 2023시즌 36경기를 치르며 14골 14도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스탯을 작성했다. 투표가 발디비아로 쏠리는 건 당연했다. 발디비아는 MVP 수상과 동시에 몇 가지 기록을 더 작성했다. 일단 K리그2 도움왕까지 거머쥐었다. 그리고 한 시즌 28개 공격포인트 작성으로 이 부문 '최다 기록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3시즌 발디비아는 정말이지 K리그2의 파괴자였다.



MVP

# 발디비아

K LEAGUE 2

BEST  
11

GK



구상민  
3,240분 출전시간

DF



김동진  
27회 슈팅

DF



이상민  
93.5% 패스 성공률

DF



이한도  
15회 공중볼 경합 성공

DF



최준  
7.33 평점

MF



김진규  
196회 공격지역 전진패스

MF



원두재  
2,401회 패스

MF



모재현  
50% 유효→골 전환율

FW



조르지  
63회 박스 안 슈팅

GK



구상민  
3,240분 출전시간

DF



김동진  
27회 슈팅

DF



이상민  
93.5% 패스 성공률

부산의 수비선. 다른 무엇보다 꾸준했다. 3,240분을 소화한 구상민은 K리그2 모든 선수 중 유일하게 2023시즌을 전 경기 풀타임으로 커버했다. 구상민이 버텨준 덕에 부산은 2023년 마지막까지 꿈을 꿀 수 있었다.

K리그2를 대표하는 공격형 측면 수비수였다. 27회의 슛은 K리그2 모든 측면 수비수 중 '최다'였다. 5번의 골 또한 '최다'였다. 공수 관여도가 부쩍 높아진 이 포지션에서 김동진의 가치란 2023년도를 지나며 더욱 높아졌다.

김천의 최후방 사령관. 93.5%라는 경이로운 패스 성공률을 남겼다. K리그2 센터백을 모두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였다. 패스의 방향성을 떠나 이토록 성공률이 높다는 건 이상민 덕에 김천 뒤쪽에 안정감이 찾아왔다는 증거다.

'하늘의 지배자.' 부산의 이한도는 158회나 공중 볼 경합에 성공했다. 팀 내에서는 독보적 수치였다. 2위 조위제(139)와도 차이가 커다. 이런 스탯은 이한도의 존재가 부산에서는 대체 불가였음을 의미한다. 어엿한 K리그2 최고 센터백 중 한 명.

최준은 부산 수비진의 색채를 다채롭게 만든 선수다. K리그2 모든 측면 수비수 중 최고 평점을 기록했고, 공격포인트(2골 5도움)도 두 번째로 높았다. 한창 성장 중인 최준은 스피드와 체력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높은 영역에 도달했다.

김천의 지휘자. 196회나 공격 지역에서 전진 패스를 뿌려댔다. K리그2 모든 선수를 통틀어 최다 수치였다. 2,248분 만의 출전 시간을 기록했으나 K리그2 전체서 1위를 기록했다. 완벽한 '일당백' 역할을 수행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단순하게 공격포인트(28) 개수로만 따지면 K리그 1·2를 통틀어 최다였다. 전남은 공을 풀 때 발디비아를 봤다. 발디비아가 해줄 거 같았고 실제로도 늘 그러했다. K리그2 역사에 남을 선수다.

김천의 공격 철학을 완성한 키 플레이어. K리그2 윙어를 통틀어 골 전환율이 가장 높았다. 최전방 공격수가 아님에도 12개나 유효슛을 기록했고, 그중 6회가 골이 됐다. 모재현의 발끝에 걸리면 50%는 골이었다는 소리다.

경남의 공격 철학을 완성한 키 플레이어. K리그2 윙어를 통틀어 골 전환율이 가장 높았다. 최전방 공격수가 아님에도 12개나 유효슛을 기록했고, 그중 6회가 골이 됐다. 모재현의 발끝에 걸리면 50%는 골이었다는 소리다.

김포의 기적을 이끈 킬러. 16골로 K리그2 득점왕을 차지했다. 김포는 백 스리를 기반으로 수비에 무게 중심을 뒀는데, 몇 안 되는 찬스마다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미션이 있었다. 그때마다 루이스가 해결했다. 참으로 매서웠다.

# RESULTS

## K리그1

| 부문      | 소속   | 후보명    | 득표수 |    | 그룹별 합산 점수 |       | 최종점수  |       |        |
|---------|------|--------|-----|----|-----------|-------|-------|-------|--------|
|         |      |        | 감독  | 주장 | 미디어       | 감독    |       |       |        |
| 감독상     | 포항   | 김기동    | 1   | 5  | 17        | 2.50  | 12.50 | 5.91  | 20.91  |
|         | 광주   | 이정호    | 1   | 1  | 59        | 2.50  | 2.50  | 20.52 | 25.52  |
|         | 인천   | 조성환    | 1   | 2  | 3         | 2.50  | 5.00  | 1.04  | 8.54   |
|         | 울산   | 홍명보    | 9   | 4  | 36        | 22.50 | 10.00 | 12.52 | 45.02  |
|         | 계    |        | 12  | 12 | 115       | 30    | 30    | 40    | 100.00 |
| MVP     | 울산   | 김영권    | 6   | 4  | 55        | 15.00 | 10.00 | 19.13 | 44.13  |
|         | 광주   | 안영규    | 0   | 0  | 8         | 0.00  | 0.00  | 2.78  | 2.78   |
|         | 포항   | 제카     | 4   | 7  | 41        | 10.00 | 17.50 | 14.26 | 41.76  |
|         | 대전   | 티아고    | 2   | 1  | 11        | 5.00  | 2.50  | 3.83  | 11.33  |
|         | 계    |        | 12  | 12 | 115       | 30    | 30    | 40    | 100.00 |
| 영플레이어 상 | 수원   | 김주찬    | 3   | 1  | 15        | 7.50  | 2.50  | 5.22  | 15.22  |
|         | 포항   | 이호재    | 2   | 2  | 22        | 5.00  | 5.00  | 7.65  | 17.65  |
|         | 광주   | 정호연    | 2   | 6  | 43        | 5.00  | 15.00 | 14.96 | 34.96  |
|         | 대구   | 황자원    | 5   | 3  | 35        | 12.50 | 7.50  | 12.17 | 32.17  |
|         | 계    |        | 12  | 12 | 115       | 30    | 30    | 40    | 100.00 |
| GK      | 광주   | 김경민    | 0   | 2  | 16        | 0.00  | 5.00  | 5.57  | 10.57  |
|         | 대전   | 이창근    | 1   | 2  | 31        | 2.50  | 5.00  | 10.78 | 18.28  |
|         | 울산   | 조현우    | 9   | 8  | 62        | 22.50 | 20.00 | 21.57 | 64.07  |
|         | 포항   | 횡인재    | 2   | 0  | 6         | 5.00  | 0.00  | 2.09  | 7.09   |
|         | 계    |        | 12  | 12 | 115       | 30    | 30    | 40    | 100.00 |
| DF 좌    | 전북   | 김진수    | 6   | 1  | 32        | 15.00 | 2.50  | 11.13 | 28.63  |
|         | 포항   | 완델손    | 6   | 7  | 47        | 15.00 | 17.50 | 16.35 | 48.85  |
|         | 광주   | 이민기    | 0   | 2  | 21        | 0.00  | 5.00  | 7.30  | 12.30  |
|         | 대구   | 홍철     | 0   | 2  | 15        | 0.00  | 5.00  | 5.22  | 10.22  |
|         | 계    |        | 12  | 12 | 115       | 30    | 30    | 40    | 100.00 |
| DF 중앙   | 포항   | 그랜트    | 3   | 6  | 41        | 3.75  | 7.50  | 7.13  | 18.38  |
|         | 울산   | 김기희    | 0   | 3  | 15        | 0.00  | 3.75  | 2.61  | 6.36   |
|         | 울산   | 김영권    | 10  | 7  | 76        | 12.50 | 8.75  | 13.22 | 34.47  |
|         | 강원   | 김영빈    | 0   | 1  | 2         | 0.00  | 1.25  | 0.35  | 1.60   |
|         | 대구   | 김진혁    | 0   | 1  | 1         | 0.00  | 1.25  | 0.17  | 1.42   |
| DF 우    | 전북   | 박진섭    | 4   | 1  | 41        | 5.00  | 1.25  | 7.13  | 13.38  |
|         | 광주   | 안영규    | 2   | 1  | 33        | 2.50  | 1.25  | 5.74  | 9.49   |
|         | 광주   | 티모     | 5   | 4  | 21        | 6.25  | 5.00  | 3.65  | 14.90  |
|         | 계    |        | 24  | 24 | 230       | 30    | 30    | 40    | 100.00 |
|         | 광주   | 두현석    | 2   | 6  | 31        | 5.00  | 15.00 | 10.78 | 30.78  |
| MF 좌    | 포항   | 박승욱    | 2   | 1  | 3         | 5.00  | 2.50  | 1.04  | 8.54   |
|         | 울산   | 설영우    | 8   | 5  | 77        | 20.00 | 12.50 | 26.78 | 59.28  |
|         | 전북   | 안현범    | 0   | 0  | 4         | 0.00  | 0.00  | 1.39  | 1.39   |
|         | 계    |        | 12  | 12 | 115       | 30    | 30    | 40    | 100.00 |
|         | 서울   | 나상호    | 4   | 4  | 48        | 10.00 | 10.00 | 16.70 | 36.70  |
| MF 중앙   | 울산   | 루빅손    | 2   | 0  | 16        | 5.00  | 0.00  | 5.57  | 10.57  |
|         | 포항   | 백성동    | 0   | 4  | 12        | 0.00  | 10.00 | 4.17  | 14.17  |
|         | 인천   | 제르소    | 6   | 4  | 39        | 15.00 | 10.00 | 13.57 | 38.57  |
|         | 계    |        | 12  | 12 | 115       | 30    | 30    | 40    | 100.00 |
|         | 포항   | 고영준    | 3   | 2  | 43        | 3.75  | 2.50  | 7.48  | 13.73  |
| MF 우    | 인천   | 김도혁    | 1   | 0  | 14        | 1.25  | 0.00  | 2.43  | 3.68   |
|         | 울산   | 김민혁    | 0   | 1  | 6         | 0.00  | 1.25  | 1.04  | 2.29   |
|         | 전북   | 백승호    | 4   | 3  | 22        | 5.00  | 3.75  | 3.83  | 12.58  |
|         | 포항   | 오베르단   | 8   | 8  | 49        | 10.00 | 10.00 | 8.52  | 28.52  |
|         | 수원FC | 윤빛가람   | 2   | 0  | 7         | 2.50  | 0.00  | 1.22  | 3.72   |
| FW      | 광주   | 이준민    | 5   | 5  | 73        | 6.25  | 6.25  | 12.70 | 25.20  |
|         | 울산   | 이청용    | 1   | 5  | 16        | 1.25  | 6.25  | 2.78  | 10.28  |
|         | 계    |        | 24  | 24 | 230       | 30    | 30    | 40    | 100.00 |
|         | 포항   | 김승대    | 3   | 6  | 27        | 7.50  | 15.00 | 9.39  | 31.89  |
|         | 대전   | 김인균    | 2   | 2  | 10        | 5.00  | 5.00  | 3.48  | 13.48  |
| MF 우    | 광주   | 아사니    | 5   | 2  | 14        | 12.50 | 5.00  | 4.87  | 22.37  |
|         | 울산   | 엄원상    | 2   | 2  | 64        | 5.00  | 5.00  | 22.26 | 32.26  |
|         | 계    |        | 12  | 12 | 115       | 30    | 30    | 40    | 100.00 |
|         | 대구   | 고재현    | 0   | 1  | 1         | 0.00  | 1.25  | 0.17  | 1.42   |
|         | 대구   | 에드가    | 1   | 1  | 1         | 1.25  | 1.25  | 0.17  | 2.67   |
| FW      | 인천   | 에르난데스  | 2   | 1  | 3         | 2.50  | 1.25  | 0.52  | 4.27   |
|         | 제주   | 유리 조나탄 | 0   | 0  | 2         | 0.00  | 0.00  | 0.35  | 0.35   |
|         | 수원FC | 이승우    | 1   | 1  | 7         | 1.25  | 1.25  | 1.22  | 3.72   |
|         | 포항   | 제카     | 9   | 9  | 63        | 11.25 | 11.25 | 10.96 | 33.46  |
|         | 울산   | 주민규    | 6   | 10 | 96        | 7.50  | 12.50 | 16.70 | 36.70  |
|         | 대전   | 티아고    | 5   | 1  | 57        | 6.25  | 1.25  | 9.91  | 17.41  |
|         | 계    |        | 24  | 24 | 230       | 30    | 30    | 40    | 100.00 |

# RESULTS

## K리그2

| 부문      | 소속   | 후보명  | 득표수 |    | 그룹별 합산 점수 |       | 최종점수  |       |
|---------|------|------|-----|----|-----------|-------|-------|-------|
|         |      |      | 감독  | 주장 | 미디어       | 감독    |       |       |
| 감독상     | 김포   | 고정운  | 3   | 3  | 42        | 6.92  | 16.63 | 30.48 |
|         | 부산   | 박진섭  | 1   | 6  | 24        | 2.31  | 13.85 | 9.50  |
|         | 부천   | 이영민  | 3   | 4  | 7         | 6.92  | 9.23  | 2.77  |
|         | 김천   | 정정용  | 6   | 0  | 28        | 13.85 | 0.00  | 11.09 |
|         | 계    |      | 13  | 13 | 101       | 30    | 30    | 40    |
| MVP     | 전남   | 발디비아 | 6   | 10 | 52        | 13.85 | 23.08 | 57.52 |
|         | 김천   | 원두재  | 3   | 1  | 35        | 6.92  | 2.31  | 13.86 |
|         | 부산   | 이한도  | 1   | 2  | 11        | 2.31  | 4.62  | 11.28 |
|         | 충북청주 | 조르지  | 3   | 0  | 3         | 6.92  | 0.00  | 8.11  |
|         | 계    |      | 13  | 13 | 101       | 30    | 30    | 40    |
| 영플레이어 상 | 김천   | 김민준  | 2   | 2  | 6         | 4.62  | 4.62  | 11.61 |
|         | 부천   | 안재준  | 9   | 7  | 80        | 20.77 | 16.15 | 31.68 |
|         |      |      |     |    |           |       |       |       |

A dynamic photograph of two soccer players in mid-air, competing for a header. The player in the foreground is wearing a red jersey with a white cross logo and the letters 'HDC' on the sleeve. The player in the background is wearing a white jersey with a blue Puma logo and the text 'CHEONAN CITY'.

02

TALKING POINTS

## TOPIC 1

## 파이널 A 클럽들의 확고한 플랜 A



이번 시즌 K리그1 파이널 라운드 그룹 A 팀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확고한 플랜 A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시즌 내내 명확한 색채를 보이며 전술 일관성을 유지한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시즌 중 감독 교체를 단행한 전북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들 방향성이 뚜렷했다. 울산·포항·광주·인천·대구 등은 명확한 플랜 A를 자랑했다.

본래 K리그1은 상위팀들이 확고한 플랜 A를, 하위팀들이 다양한 전술을 운영한다. 전술을 수정한다는 건 플랜 A가 통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올해는 유독 상위팀들의 플랜 A 활용 경향이 짙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감독을 교체한 전북을 제외한 모든 팀들이 시즌 중에 게임을 풀어가는 공식을 유지했다. 큰 틀의 전술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과 포항의 경우, 상대에 따라 대응 전술을 이따금씩 대입하기는 했어도 플랜 A는 올곧게 지켜냈다. 흥명보 체제의 울산은 올해 백 스리 옵션이라는 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다 수비적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한 수였는데, 주로 전북과 포항을 상대로만 전략을 가동했다. 울산은 백 스리 옵션을 꺼내들 때를 제외하면 흔들림 없는 4-2-3-

1 전술을 사용했다.

광주는 '주도하는 축구'라는 명확한 틀을 지켜냈다. 시즌 중 경기에 따른 포메이션 변화는 발생했어도 항상 볼을 소유하는 기조는 변함없었다. 광주에 포메이션 변화란 '상대의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더 크게 발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포메이션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경기를 주도한다는 대원칙. 광주는 그걸 잘 지켰다.

인천은 조성환 감독의 백 스리 전략 안에서 2022시즌과 유사한 축구를 펼쳤다. 3-4-3과 3-5-2 포메이션을 적절하게 배합했을 뿐 그 안의 스타일은 매우 흡사했다. 공격과 수비에서 추구하는 명확한 목적. 조성환 감독의 인천은 단출하게 게임을 풀어가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끝으로 대구는 플랜 A의 농도만 따지면 매년 그랬듯 최고였다. 최원권 감독 체제의 대구는 보다 극단적으로 내려앉았다. 이번 시즌 대구가 기록한 35.1%의 점유율은 2015년 이래 기록된 K리그1의 역대 최저 수치다. 대구는 어느 팀을 만나든 항상 후방으로 깊이 파고들어 진영을 쳤다. 흔들리지 않는 플랜 A로 파이널 A에 합류했다.

## TOPIC 2

## K리그2에 나타난 대인 마크



이번 시즌 K리그2엔 두 팀이 확고한 대인 마크를 활용했다. 부산과 충북청주다. 대인 마크는 지역 수비를 혼용하며 활용하기 마련이다. 지역을 지키지 않고 상대만을 따라가다간 공간을 내준다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시즌 부산과 충북청주는 올곧은 대인 마크 수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일단 부산은 K리그2 정규리그 2위에 올랐으며, 충북청주는 신생팀임에도 잘 싸운 8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두 팀 모두 올해 최소 실점팀 상위(부산 2위, 충북청주 5위)에 이름이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팀의 대인 마크는 2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지역 수비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 선수를 따라다닌다는 것. 모든 선수들은 항상 마크맨의 위치에 맞춰 움직인다. 둘째는 항상 최후방에 +1, 최전방에 -1의 숫자를 유지한다는 점. 최후방 한 명의 추가 선수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대인 마크의 기본을 잘 살려낸 매커니즘이다.

부산은 대인 마크를 기반으로 강한 압박을 가했다. 핵심은 최전방 공격수의 '채널링'이다. 채널링이란 상대 빌드업을 측면으로 유도하는

수비 방식을 말한다. 2명의 선수를 상대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중앙을 갈라 상대를 옆쪽에서 압박한다. 이 경우 상대를 한 쪽 측면으로 몰아 1선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 공격수가 옆에서 압박하기 때문에 볼을 소유한 상대 센터백은 옆으로 패스를 전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은 이 방식을 써 대인 마크를 뿌리로 하는 프레싱을 전개했다. 한편 충북청주는 부산과 작동법이 상이했다. 충북청주는 상대 최후방 선수를 아예 자유롭게 뒀다. 상대 센터백 한 명은 방치되며 대신 나머지 선수들을 타이트하게 마크해 패스 옵션을 철저하게 막아버린다는 의도였다. 부산에 비해 적에게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순 없으나 보다 밀도 높은 수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발생했다.

| 순위 | 팀    | 포메이션                  | 감독                    |
|----|------|-----------------------|-----------------------|
| 1  | 울산   | 4-2-3-1               | 홍명보                   |
| 2  | 포항   | 4-4-2                 | 김기동                   |
| 3  | 광주   | 4-4-2                 | 이정호                   |
| 4  | 전북   | 4-4-2, 3-4-3          | 김상식 → 김두현 → 페트레스쿠     |
| 5  | 인천   | 3-4-3, 3-5-2          | 조성환                   |
| 6  | 대구   | 3-4-3                 | 최원권                   |
| 7  | 서울   | 4-3-3, 4-4-2, 3-4-3   | 안의수 → 김진규             |
| 8  | 대전   | 3-5-2, 4-4-2          | 이민성                   |
| 9  | 제주   | 3-4-3, 4-4-2          | 남기일 → 정조국             |
| 10 | 강원   | 3-4-3, 4-4-2          | 최용수 → 윤정환             |
| 11 | 수원FC | 4-2-3-1, 3-4-3        | 김도균                   |
| 12 | 수원   | 4-2-3-1, 3-4-3, 4-3-3 | 이병근 → 최성용 → 김병수 → 염기훈 |

이번 시즌 K리그1 팀들의 포메이션과 감독 변화



이번 시즌 부산과 충북청주는 대쪽 같은 대인 마크 수비로 성과를 냈다.

## TOPIC 3

## 중앙 미드필더의 전술적 다양화



### 안정성을 위한 선택, 포항 오베르단

**중앙 미드필더는 폭 넓은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포지션이다. 대개 각 포지션은 해당 위치에 필요한 요건을 요구받는다. 예를 들어 센터백은 좋은 신장, 측면 자원은 스피드 같은.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는 ‘선수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형태가 변한다. 이번 시즌 K리그1·2에서는 그 특성이 더욱 두드려졌다. 중앙 미드필더의 전술적 쓰임새가 더 다양해졌다.**

포항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오베르단의 활동 범위로 안정성을 가미했다. 포항은 전술상 최전방에 충분한 숫자가 확보되어 있는 팀이다. 4-4-2 공격 시 양 풀백을 높게 끌어 옮겨 4명의 공격 라인과 함께 위치시킨다. 최전방에 6명에 가까운 숫자를 배치하는 셈이다. 여기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오베르단이 빛난다. 오베르단의 미션은 포항 최전선 아래를 보조하는 것이다. 최전방에 6명이 들어서면 중원은 자연스럽게 헐거워진다. 이때 오베르단은 폭 넓은 수비 범위와 태클로 포항의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오베르단은 33라운드 이전까지 K리그에서 유일하게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한 필드플레이어였다. 포항의 성공에 오베르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공간을 탐색하는 미드라이커, 김포 김이석

한편 같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여도 다른 유형의 케이스가 있다. 바로 김포의 김이석이다. 이번 시즌 김포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김이석을 득점 루트 중 하나로 선택했다. 김포는 공격 시 3-4-1-2 대형을 추구한다. 이때 볼 소유 능력이 뛰어난 투톱이 빈 공간으로 내려와 볼을 받는 성향을 보인다. 상대 수비에 둘러싸일 때면 항상 측면이나 밑으로 움직인다. 낮은 지역에서 볼을 받아 공격을 펼쳐간다. 미드필더 김이석은 투톱이 볼을 받기 위해 움직일 때 오히려 전방으로 침투한다. 투톱이 빈 공간으로 나와 볼을 받는다면 득점을 위한 위치에 숫자가 부족할 텐데, 바로 이 순간 김이석과 양 윙백이 찰나의 시공간으로 침투를 시도한다. 2023시즌 김포의 핵심 공격 전술은 바로 이것이었다. 상대 수비로서는 위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니 따라가기 버거울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즌 김이석은 특색 있는 전술 룰을 수행하며 4골을 넣었다. 상대 박스로 침투하거나 때로는 중거리슛으로 공격 본능을 뽐냈다. 실제 16골을 넣은 에이스 루이스를 제외하면 김이석이 김포 최다 득점자였다. 김포에 김이석이란 ‘명백한 공격 옵션’이었다.



포항은 오베르단의 폭 넓은 수비 범위를 통해 중원을 커버했다.



김포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김이석이 최전방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했다.



### 중앙 미드필더의 공격적 활용, 수원FC 이승우

이번 시즌 수원FC는 중앙 미드필더를 공격적으로 활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여름에 나타난 이승우의 ‘중앙 미드필더 기용’이다. 수원FC는 7-8월즈음 이승우를 4-3-3의 중앙 미드필더로 내세워 25라운드 수원전 2-0 승, 27라운드 강원전 2-1 승 등의 성과를 냈다. 이승우가 중원에 위치할 경우 얻는 이점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상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볼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볼 소유 시 항상 전방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 마지막 세째는 후방으로부터 침투를 통해 이승우의 강점인 속도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수원FC는 이승우를 2선과 3선에 번갈아 기용하며 재미를 봤다. 중앙 미드필더 이영재의 작동법도 흥미로웠다. 4-3-3의 왼쪽 미드필더 자리에 선 이영재는 측면 공격 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측면에서 볼을 받을 경우 이영재의 최대 강점인 킥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재는 중원과 측면을 미끄러지처럼 오가며 수원FC의 박스 안 타깃맨을 지원했다. 시즌 말미에는 이영재에게서 김현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득점 루트가 살아나기도 했다.



수원FC는 중앙 미드필더를 공격적으로 활용했다.

A dynamic photograph of two soccer players in mid-air during a competition. One player, wearing a white jersey with 'SAMSUNG Galaxy' and the number 17, is performing a bicycle kick. The other player, in a green jersey with 'JEONBUK' and 'AVANTEN', is attempting to block or intercept the ball. The background shows a stadium filled with spectators.

05

ANALYSIS

# GOAL SCORING 득점

K리그의 저득점 성향은 이제 '추세'가 됐다. 올해 K리그1에는 전체 228경기에서 단 567골이 터졌다. 지난 8년 중 2021년 다음으로 적은 기록이다. 최저 득점이 터진 2021년과는 단 4골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K리그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저득점 추세를 겪는다.



## K리그의 저득점 추세는 계속될까?

K리그는 2021년 이후 저득점 페イス로 접어들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번도 평균 2.6골 이하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3시즌간 모두 그 수치에 달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은 최근 8년 중 2021년 다음으로 가장 적은 득점률이 기록된 한 해였다.

요인은 크게 2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2023년 수비 조직력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점이다. 우선 절대 기대 득점부터 작년에 비해 적게 기록됐다. 작년 607.8xG의 수치에서 547.7xG로 감소했다. 1년 사이에 무려 50골에 가까운 득점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바로 슛 횟수다. 작년과 올해에는 슛 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았다. 작년에는 11.4개였고 올해는 11.5개였다. 슛 횟수는 비슷하나 기대 득점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는 보다 덜 위협적인 자리에서 슛이 시도될 때가 많았다는 뜻이다.

둘째는 최하위권 쪽에서 일정 이상의 득점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시즌 K리그1은 2021년의 전북(71) 이후 최다 득점 팀을 2팀이나 배출했다. 바로 울산과 서울이다. 두 팀 모두 63골씩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하위권인 수원과 강원은 올해 각각 35골과 30골만을 넣는데 그쳤다. 경기당 채 1골이 되지 않는 득점률이다. 특히 30골의 강원은 2012년 상주 이후 최저 득점을 기록한 팀으로 남았다. 경기당 0.79골이었다. 2012년 이래 K리그1에 강원과 같은 득점률을 보인 팀은 단 3팀이었다. 2014년의 경남과 2015년의 부산, 그리고 2019년의 성남이다. 모두 한 시즌 38경기서 단 30골만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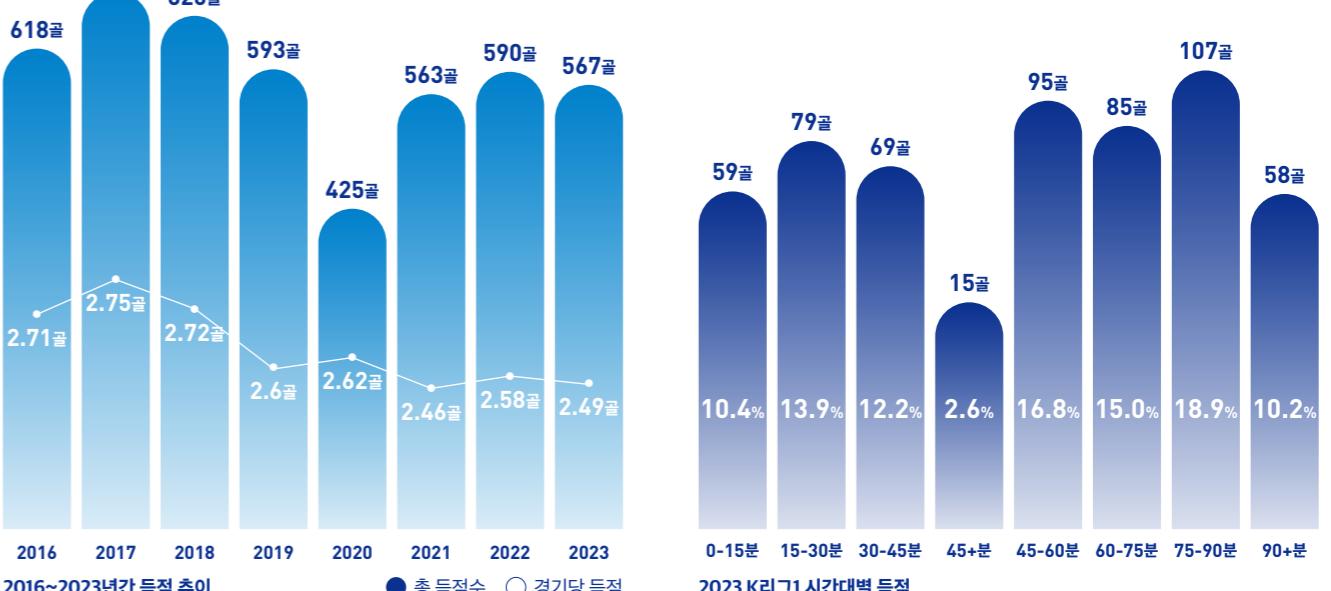
이는 후반 추가 시간의 증가가 불러일으킨 현상으로 보인다. K리그의 실제 플레이 시간(APT)은 2022년 35분 10초에서 2023년 36분 29초로 증가했다. 약 1분 20초에 가까운 시간이 늘어났다. APT 증대 흐름에 따라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지는 득점도 늘었다. 경기 끝물엔 수비 조직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다. 여기에 해당 구간의 시간이 늘어나니 더 많은 득점이 나올 만했다.

반면 후반 정규 시간 내에서 득점은 줄어들었다. 2023시즌은 후반 정규 시간에 단 287골 만이 터졌다. 2016년 아래 처음으로 기록된 300골 이하의 수치다. K리그1은 최근 8년간 단 한 번도 후반 정규 시간 동안 300골 이하의 수치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이 수치는 K리그1 클럽들의 수비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특히 수비 조직력의 '일관성'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후반에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 등이 줄었다. 전술과 피지컬의 발전에 기인한 현상이다. 오베르단·이순민·보아텡·김도현 등 수비력을 지닌 미드필더들의 활약도 좋았다.

## '후반 추가 시간' 확대가 불러일으킨 현상

이번 2023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정규시간 90분 이후에 발생한 득점이 월등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2시즌(53)과 2021시즌(48)에 비해 무려 5~10골 정도가 더 터졌다. 전체 득점 비중으로 따지자면 1% 정도가 더 증가한 수치다.



| 구단   | 득점<br>(자책골 제외) | 기대 득점<br>(xG) |
|------|----------------|---------------|
| 울산   | 62             | 56.7 (-5.3)   |
| 서울   | 61             | 52.6 (-8.4)   |
| 대전   | 55             | 40.5 (-14.5)  |
| 포항   | 53             | 51.0 (-2.0)   |
| 광주   | 46             | 39.6 (-6.4)   |
| 인천   | 45             | 47.0 (+2.0)   |
| 전북   | 44             | 49.5 (+5.5)   |
| 수원FC | 44             | 45.3 (+1.3)   |
| 제주   | 42             | 46.4 (+4.4)   |
| 대구   | 42             | 43.5 (+1.5)   |
| 수원   | 34             | 37.6 (+3.6)   |
| 강원   | 28             | 38.0 (+10.0)  |

### 득점 수를 가른 요인, 골 결정력

이번 시즌 K리그1의 득점 순위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명단 상위에 위치한 팀들은 좋은 골 결정력을, 반대로 밑에 위치한 팀들은 좋지 않은 결정력을 보였다. 올해 K리그1은 골 결정력의 차이에서 득점 유무가 갈렸다.

기대 득점 대비 가장 높은 득점을 기록한 팀은 대전이다. 이번 시즌 대전은 40.5xG 속에서 무려 55골을 뽑아냈다. 기대에 비해 무려 15골 정도의 골을 더 뽑아낸 셈이다. 지난 2시즌을 통틀어 보더라도 올해 대전만큼 좋은 골 결정력을 뽐낸 팀은 없었다.

서울의 수치도 주목해볼 만하다. 2022시즌 서울은 K리그에서 가장 낮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을 기록한 팀이었다. 당시 50.8xG의 기대 득점 속에서 단 43골만을 뽑아냈다. 강등팀 성남 다음으로 기록된 가장 적은 득점이었다. 2015년 이래 K리그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61.9%)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득점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그러나 2023년은 달랐다. 서울은 K리그에서 2번째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였다. 기대 득점 대비 무려 8.5골을 더 뽑아냈다. 나상호·윌리안의 뛰어난 득점력이 주효했다. 12골의 나상호는 올해 K리그1에서 3번째로 높은 득점을



기록한 플레이어였다. 윙어로 한정지으면 최다 득점자였다.

한편 강원은 가장 좋지 않은 결정력을 보였다. 광주(39.6), 수원(37.6)과 비슷한 정도의 xG를 기록했으나 실제 득점은 30골에도 미치지 못했다. 갈레고·가브리엘·양현준 등 주요 공격 자원들이 기회에 걸맞은 골을 뽑아내지 못했다. 가장 저조했던 선수는 갈레고다. 갈레고는 5.4xG의 기대 득점 속에서 단 2골만을 기록했다.

### 최고의 자리 오른 주민규, 기대 이상이었던 티아고

주민규가 다시 K리그1의 득점왕이 됐다. 17골의 티아고와 득점은 같으나 출전 시간이 적은 것이 차이를 갈랐다. 이로써 주민규는 최근 3 시즌간 '리그 최다 득점' 자리를 놓치지 않는 대기록을 세웠다.

주민규의 키워드는 '집중'이다. 2022시즌 주민규는 제주에서 연계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았다. 3-4-3의 제주가 공격을 전개할 때면 주민규가 아예 2선으로 내려와 연계에 가담했다. 3-4-1-2와 같은 대형을 형성해 중원 숫자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2023년의 주민규는 보다 전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연계 역할을 수행하기 했으나 2022년만큼 낮은 지역으로 내려와 중원에 끌리진 않았다. 울산의 주민규는 보다 높은 지점에서 상대 수비와 싸워주는 역을 맡았다.

울산은 주민규의 이러한 능력을 백분 활용했다. 주민규는 최전방에서 '깊은 위치'와 '라인 사이' 지역을 유동적으로 오갔다. 상대 수비를 누르다가도 상황에 따라 밑으로 내려와 볼을 받았다. 주민규가 내려와 볼을 받을 때면 발빠른 엄원상이 배후 공간을 노릴 채비를 했다. 마틴 아담과의 투톱이 가능될 때면 보다 지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했다. 마틴 아담이 울산의 롱볼을 맡는다면 주민규는 그 주위에서 공간을 막았다. 세컨볼을 따줄 수도 있고 상대 수

| 선수  | 골  | 기대 득점(xG)   | xGOT | 슛  | 유효 슛 |
|-----|----|-------------|------|----|------|
| 주민규 | 17 | 14.9 (-2.1) | 14.9 | 69 | 35   |
| 티아고 | 17 | 10.4 (-6.6) | 11.7 | 71 | 28   |
| 제카  | 12 | 11.4 (-0.4) | 12.1 | 73 | 29   |
| 나상호 | 12 | 8.7 (-3.3)  | 7.06 | 79 | 24   |
| 바코  | 11 | 9.4 (-1.6)  | 10.5 | 81 | 35   |
| 이승우 | 10 | 11.3 (+1.3) | 11.1 | 80 | 34   |
| 유리  | 10 | 9.6 (-0.4)  | 9.2  | 58 | 24   |
| 에드가 | 9  | 8.5 (-0.5)  | 8.1  | 72 | 32   |
| 고재현 | 9  | 8.4 (-0.6)  | 8.8  | 64 | 22   |
| 라스  | 9  | 5.9 (-3.1)  | 4.2  | 48 | 16   |

비를 분산시킬 수도 있었다. 바코가 최전방에 위치할 때면 연계 역할을 오가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티아고도 훌륭했다. 티아고의 퍼포먼스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올해 K리그1 모든 선수들 중 기대 득점 대비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는 것이다. 티아고는 수치상 기회에 비해 무려 6.5골 정도를 더 넣었다. 해당 수치의 2위인 동료 김인균(-4.6)과도 무려 2골 정도가 차이난다. 티아고는 K리그1 전체에서 가장 효과적 공격수였다.

xGOT 수치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xGOT란 슛이 시도된 이후 유효 슛이 득점으로 얼

마만큼 연결될 수 있느냐를 말해주는 지표다. xG값과 슛이 골문 앞으로 향한 위치에 의해 값이 결정된다. 얼마나 좋은 슛을 시도했느냐를 의미한다.

이 xGOT를 기대 득점과 연관하면 공격수의 기량을 가늠할 수 있다. 낮은 xG 속에서 높은 xGOT를 기록할수록 '득점 확률이 적은 위치에서 좋은 슛을 때렸다'라는 결론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 티아고는 득점 최상위 선수 10명 중 'xGOT-xG'의 값이 가장 컸다. 비교적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선의 슛을 시도했다는 의미다. 승격팀 대전이 일으킨 돌풍의 중심에는 티아고가 있었다.



# SET PLAYS 세트 플레이

이번 시즌 K리그1은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총 143골이 터졌다. 지난 3년간 기록된 최다 득점 수치다. 133골이 터진 지난 시즌보다 10골이 더 나왔다. 이번 시즌 K리그1의 세트 플레이 전술은 더욱 다양했다. 세트 플레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은 제주다. 전체 43골 중 16골을 세트 플레이로만 넣었다. K리그2까지 통틀어 보더라도 최고다.

가장 인상적 지점은 코너킥이다. 전체 16골 중 11골을 코너킥 상황에서 넣었다. 이번 시즌 제주는 헤이스의 킥력으로 위협적인 세트 플레이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헤이스는 매우 정확한 킥을 구사하는 선수다. 타깃맨이 먼 포스트에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볼을 보내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

수원의 지표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시즌 K리그에서 가장 높은 세트 플레이 득점 비중을 기록했다. 전체 35골 중 14골의 기록이다. 무려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40%)다. 수원은 지난 시즌에도 K리그1에서 가장 많은 코너킥 골을 뽑아냈던 바가 있다. 올해에도 '세트피스 강팀'의 면모를 지키며 득점 상위권에 위치했다.

| 팀    | 세트 플레이 득점 | 비중    |
|------|-----------|-------|
| 제주   | 16        | 37.2% |
| 광주   | 15        | 31.9% |
| 수원   | 14        | 40.0% |
| 서울   | 14        | 22.2% |
| 울산   | 13        | 20.6% |
| 수원FC | 12        | 27.3% |
| 대구   | 11        | 26.2% |
| 전북   | 11        | 24.4% |
| 포항   | 11        | 20.8% |
| 인천   | 10        | 21.7% |
| 대전   | 10        | 17.9% |
| 강원   | 6         | 20.0% |

K리그1 세트 플레이 득점 순위 (코너킥+프리킥)



## 제주 그 누구보다 정확했던 헤이스의 킥력

이번 시즌 제주 세트 플레이의 핵심은 헤이스다. 왼쪽과 오른쪽 코너 플래그를 가지 않고 키커를 전담했다. 대개 지역이 아닌 선수 개개인의 타깃을 향해 킥을 때리는 경우가 많다. 유리·임채민·송주훈 등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헤이스의 킥력은 강하고 정확해 타깃맨의 머리로 힘 있게 볼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골문으로 볼이 가까워지는 인스윙 코너킥 시에는 주로 파 포스트 쪽을 노린다. 골키퍼가 관여하기 힘들고 수비의 밀도가 낮기 때문이다. 종종 짧은 패스로 코너킥 상황을 풀어 가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주변 선수와 볼을 주고받은 직후 박스 안으로 강한 킥을 전개했다.



## 울산 코너킥 최소 실점의 비결, 지역 수비의 디테일

울산은 수비적으로 가장 견고한 지표를 구축했다. 2023시즌 코너킥 상황에서 단 1실점만을 허용했다. 37라운드 인천전에서 오반석에게 허용한 골이 유일한 실점이다. 울산의 이러한

한 견고함은 수비 디테일에 있다. 울산은 코너킥 수비 시 지역 수비와 맨 마크를 혼용했다. 골키퍼 앞에 4-5명의 선수들을 배치해 지역 수비를 깔아 놓는다. 상대가 인스윙 코너킥을 전개할 때면 지역 수비를 6야드 박스 안으로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볼이 골문 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궤적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아웃스윙으로 킥이 시도될 때면 6야드 박스 바깥에 대각선으로 지역 수비를 깔아 놓는 형태를 보였다. 이 경우 아웃스윙의 궤적에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광주 광주의 신선함은 세트 플레이에서도

광주는 매우 다양한 세트 플레이 전술을 시도했다. 이중 가장 흥미로운 전술은 기울에 시도했던 코너킥 패턴이다. 10월 광주는 종종 코너킥 시 선수들이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신 모두 박스 바깥쪽에 위치해 킥이 시도될 때 안으로 들어가 상대와 경합했다. 이 경우 자연스레 파 포스트 쪽에서 순간적 수적 우위를 이뤄낼 수 있었다. 상대로선 박스 안에 일정 선수들을 배치해 지역 수비를 깔아 놓아 했기 때문이다. 비록 광주의 코너킥 패턴은 큰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전술적으로 되돌아볼 가치가 있는 장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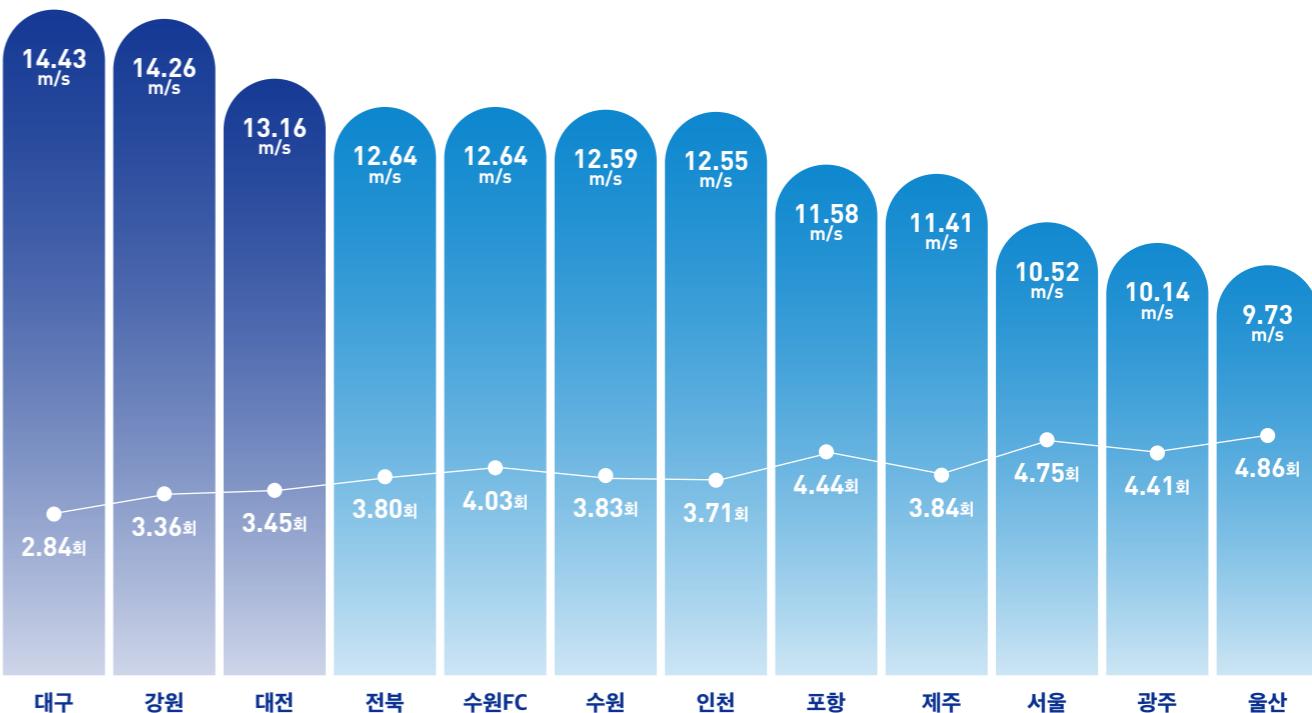
# COUNTERATTACK 역습

2023년은 2022년보다 전반적인 공격 속도가 느려졌다. K리그1 12개 팀들의 ‘평균ダイレクトスピード’ 수치가 줄었다. 특히 상위권 쪽에서 수치 저하가 눈에 띈다. 작년 1~3위를 기록한 수원FC, 대구, 강원이 모두 14.9m/s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위 대구는 단 14.4m/s였다.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다. 2022년에 비해ダイレクト スピード는 감소한 반면 평균 패스 횟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각각 3.89개(2022)와 3.94개(2023)로 매우 근사한 수치를 보였다. K리그1 팀들의 전반적인 연결성은 비슷한데 반해 그 전개가 이뤄지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다.

이 스탯은 2023년 K리그1이 보다 점진적 공격을 전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K리그1은 2022년보다 디펜스·미드필더 진영에서의 패스 횟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반대로 공격 진영 패스는 더욱 줄었다. 공격 시 전반적 무게 중심이 아래로 향했다는 얘기다.



전체 시퀀스 \*평균ダイレクトスピード(Avg. Direct Speed)', '평균 패스 횟수' 수치  
\*시퀀스서 상대 골대 방향으로의 볼 전개 속도. 직선 거리를 토대로 계산



강원

강원의 특징은 빠르고 저돌적 선수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김대원·이정협·갈레고와 같은 선수들에 대해 지난여름 가브리엘과 웰링턴을 보강했다. 모두 빠른 반응과 주력을 지닌 선수들이다. 이번 시즌 강원은 백 스리와 백 포를 혼용했다. 윤정환 감독 부임 이후엔 본격적으로 백 포를 썼다. 강원은 어느 포메이션을 활용하든 빠르고 저돌적 역습을 펼칠 수 있는 팀이다. 1선에서 이뤄지는 동시 다발적 침투가 최대 강점이다. 선수들간 이뤄지는 공간 분배도 균등하다. 강원 반등의 중심에는 빠른 역습이 있었다.



대전

대전은 역습 시 상대 측면 배후 공간을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팀이다. 시작은 대전의 수비 형태에서부터 출발한다. 대전의 주요 수비 대형은 5-4-1과 5-3-2다. 전방 5명의 간격을 매우 폭 좁게 형성해 상대 측면 공격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상대는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측면 선수의 위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전은 볼 탈취 시 상대 측면 배후 공간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위협적 역습을 펼쳤다. 이번 시즌 대전에는 김인균·전병관·신상은 등 빠른 발을 보유한 여러 측면 자원들이 있었다.



## 역습-대구 분석

## 대구, 가장 확고한 팀 컬러를 지닌 팀

대구는 K리그1에서 가장 확고한 전술 색채를 지닌 팀이다. 최원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래 극단적 수비를 유지한다. 변화는 2022년 후반기부터 이뤄졌다. 2022년 8월 최원권 감독이 감독대행직에 오른 직후부터 더욱 수비 축구를 펼쳤다. 2022년 전반기의 대구는 가마 감독 아래서 평균 43%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최원권 감독대행 체제에서는 34.1%의 수치를 보였다. 경기 성향이 크게 뒤바뀐 것이다.

## 데이터에 드러나는 대구의 '극단적 수비'

대구의 '극단적 수비' 성향은 2023시즌에도 계속됐다. 대구는 단 35.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15년 이후 기록된 최저 점유율 수치다. 종전 기록인 2022년 대구보다도 5%나 낮다.

| 년도   | 팀  | 점유율(%) |
|------|----|--------|
| 2023 | 대구 | 35.1%  |
| 2022 | 대구 | 40.4%  |
| 2021 | 대구 | 42.5%  |
| 2022 | 강원 | 42.6%  |
| 2023 | 강원 | 43.3%  |

2015년 이래 기록된 K리그1 역대 최저 점유율 수치

| 팀  | 이름  | 공격시 스프린트(회) |
|----|-----|-------------|
| 대구 | 고재현 | 691         |
| 강원 | 김대원 | 542         |
| 서울 | 나상호 | 499         |
| 인천 | 제르소 | 496         |
| 제주 | 헤이스 | 493         |

2023년 K리그1 최다 공격 시 스프린트 횟수 순위

| 팀  | 이름   | 수비시 스프린트(회) |
|----|------|-------------|
| 대구 | 황재원  | 561         |
| 서울 | 김주성  | 522         |
| 포항 | 오베르단 | 503         |
| 대전 | 안튼   | 502         |
| 대구 | 고재현  | 489         |

2023년 K리그1 최다 수비 시 스프린트 횟수 순위



2022시즌 대구의 평균 점유율은 40.4%였다. 스프린트 지표에서도 대구의 확고한 전술 색채를 엿볼 수 있다. 고재현은 K리그1에서 공격 시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시도한 선수였다. 이번 시즌 총 691회였다. 대구 자체가 많은 역습을 가져가는 데 거기서 끊임없는 스프린트를 시도했다. 고재현은 일반적 빌드업 상황에서 도 전방에서 저돌적이었다. 수비 상황에서 기록된 최다 스프린트 선수도 대구다. 바로 윙백 황재원이다. 대구는 수비 전술상 양쪽 윙백에게 많은 스프린트를 요구 한다. 5-4-1 수비 대형서 미드필더 라인이 폭 좁은 간격을 형성해서다. 윙백은 측면으로 빠르게 튀어 나와 상대 공격을 놀려줘야 한다. 대구는 경기 중 수비 상황이 매우 긴 팀이다. 수비가 길면 자연스레 윙백의 스프린트 횟수도 늘어난다. 황재원은 수비 시 561회의 스프린트를 시도했다.

## 대구의 역습 패턴

2023시즌 대구의 역습 전술은 더욱 위협적이었다. 기존의 수비 성향을 극단적으로 끌어 옮

려 역습 시에 보이는 패턴이 확고해졌다. 전술적으로 응집되니 '세징야 의존증'도 어느 정도 해결했다. 대구는 세징야가 부상으로 이탈한 9-10월도 많은 승점을 벌었다. 대구 역습의 시발점은 중앙의 에드가다. 동료들이 후방에서 볼을 탈취할 때면 공격수 에드가가 중앙에서 볼을 받을 채비를 한다. 그리고 두 측면의 윙어와 윙백이 전방으로 빠르게 쇄도한다. 이때 핵심은 측면 쪽에서 손쉽게 프리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시퀀스에서 중앙의 에드가가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측면의 침투까지 지원한다.

대구의 측면 침투는 에드가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이뤄진다. 만약 에드가가 측면으로 빠질 때면 반대 측면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상대 수비가 한 쪽으로 쏠려 자연스레 반대 진영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대구의 측면 선수들은 위치를 막론하고 역습 시 항상 적극적 침투를 시도했다. 앞서 언급한 고재현이 공격 시 최다 스프린트 횟수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다.



대구의 주요 역습 패턴. 에드가가 중앙에서 볼을 받고, 양 측면에서 빠른 침투를 시도한다.



에드가가 측면으로 빠질 때면 반대 진영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 PRESSING 압박

이번 시즌 K리그1의 압박 강도는 작년에 비해 표준편차가 늘었다. 상위권의 수치는 더욱 증가했다.

지난 시즌에는 1위 울산만이 8.0 이하의 압박 강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상위 4팀 모두가 7.8~9대의 수치를 보였다. 한편 수비 지향적 팀은 더 내려앉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1위와 12위의 인천과 대구는 작년 12위의 수원FC(11.26)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하위 두 팀이 모두 파이널 라운드 A에 진입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 팀    | 압박강도(PPDA) |
|------|------------|
| 울산   | 7.81       |
| 전북   | 7.90       |
| 포항   | 7.91       |
| 대전   | 7.92       |
| 제주   | 8.35       |
| 서울   | 9.03       |
| 광주   | 9.18       |
| 수원   | 9.93       |
| 수원FC | 9.97       |
| 강원   | 10.59      |
| 인천   | 12.14      |
| 대구   | 13.59      |

압박 강도 (PPDA / Passes allowed Per Defensive Action) 수치



전북

대개 압박 강도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들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 마련이다. 압박 강도란 '상대 패스'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상대 패스의 절대적 수치가 낮다면 높은 압박 강도가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23시즌 전북은 리그 종위권의 점유율 속에서 압박 강도 2위를 기록했다. 50.5%(6위)의 점유율과 7.90(2위)의 PPDA 기록이다. 이는 전북이 다른 팀에 비해 상대가 수비 진영에서 높은 비중의 볼 소유를 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은 상대 3선을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성향을 보였다. 4-4-2 대형 아래 투톱과 미드필더 라인이 상대 3선에 대한 확고한 인지를 보이며 빌드업을 제한했다.



제주

제주의 특징은 수비 시 백 스리와 백 포 대형을 모두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기일 감독 체제에서 백 스리를 활용하다 정조국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백 포로 전환했다. 제주는 압박 시 미드필더 라인에서 역할 분담이 매우 명확한 팀이다. 5-4-1(3-4-3) 포메이션에서는 상대 측면 전개 시 약속된 압박을 펼친다. 두 중앙 미드필더는 수직으로 위치해 볼 주위 지역에 가담한다. 상대 3선 미드필더를 압박하면서 최후방 백 스리 라인을 커버하는 역할이다. 반대로 윙어는 크게 좁혀와 상대 미드필더를 수비한다. 4-4-2 포메이션에는 미드필더들의 폭 좁은 간격을 통해 중앙 지역을 틀어막는 모습을 보였다.





### 피지컬 데이터로 보는 수비 성향

2023시즌 K리그1에는 서울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가장 높은 활동량(118.3km)과 5번째로 높은 스프린트(216.6회)다. 서울은 2022시즌에도 가장 높은 활동량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엔 119.4km의 수치를 보였다.

눈에 들어오는 팀은 또 있다. 포항이다. 포항은 중위권 정도의 활동량(115.5km, 6위)을 보였지만 가장 많은 스프린트(228.5회)를 기록했다. 다른 팀들에 비해 매우 밀도 높은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포항은 수비 시 선수 개개인이 볼에 대한 적극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는 포항의 수비 전술에서 기인한다. 포항은 수비 시 지역 수비와 대인 마크를 혼용한다. 기본적으로는 4-4-2 지역 수비를 형성하나 그 안에서 선수들이 마크 맨에 따른 위치 선정을 보인다.

그러다보면 상대에게 일정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 포항은 선수 개개인의 적극적 반응과

빠른 압박으로 내주는 공간을 커버해왔다. 보다 밀도 높은 움직임을 바탕으로 지역 수비와 대인 수비를 혼용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포항은 스프린트의 일관성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기록을 보였다.



광주의 지표도 눈여겨볼만 하다. 광주는 2번째로 높은 활동량을 기록했으나 스프린트 횟수는 6위에 지나쳤다. 올해 포항과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도 반대의 데이터를 기록한 것이다.

광주가 이런 수치를 남긴 배경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광주의 전술 성향이다. 광주는 뚜렷한 포지셔닝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높은 점유율을 펼쳐왔다. ‘좋은 공간’을 점유하는 게 광주 축구의 기조다. 선수들의 뚜렷한 위치를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을 형성하기에 많은 스프린트가 요구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수비 전술이다. 광주는 그 어떤 팀보다 뚜렷한 지역 수비를 형성했다. 타이트한 간격 아래 확고한 지역 수비를 펼쳐 볼 주위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했다. 이렇게 상대 옵션을 제한하고 공격을 뒤로 밀어내는 것이 광주의 주요 수비 패턴이다. 이러한 포맷에서는 선수 개개인이 스프린트를 시도할 일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시즌 K리그1 팀들의 평균 활동량, 스프린트 횟수

# BUILD UP 빌드업

2023년 K리그1이 과거보다 빌드업을 중시하는 경향은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과 패스 횟수는 유사하나 평균 직선 이동 거리가 줄었다. 리그 전반적으로 비슷한 연결성 속에서 전진 성향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팀은 포항이다. 2022시즌에 비해 패스 횟수와 직선 이동 거리 수치가 모두 늘었다. 이번 시즌 포항은 중원에 오베르단과 김종우·한찬희를 보강하며 보다 빌드업을 중시하는 축구를 펼쳤다. 연계 형 공격수 제카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다. 포항은 K리그1에서 4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54.9%)





수원FC  
수원FC는 기

 수원FC는 가장 높은 평균 직선 이동 거리를 기록한 팀이다. 빌드업 특징은 크게 2 가지다. 하나는 양쪽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양쪽 측면 수비수가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을 때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적극적 지원을 나섰다. 최전방의 타깃맨을 활용할 때도 많았다. 롱 볼을 시도할 경우 주변 선수들이 빠르게 접근해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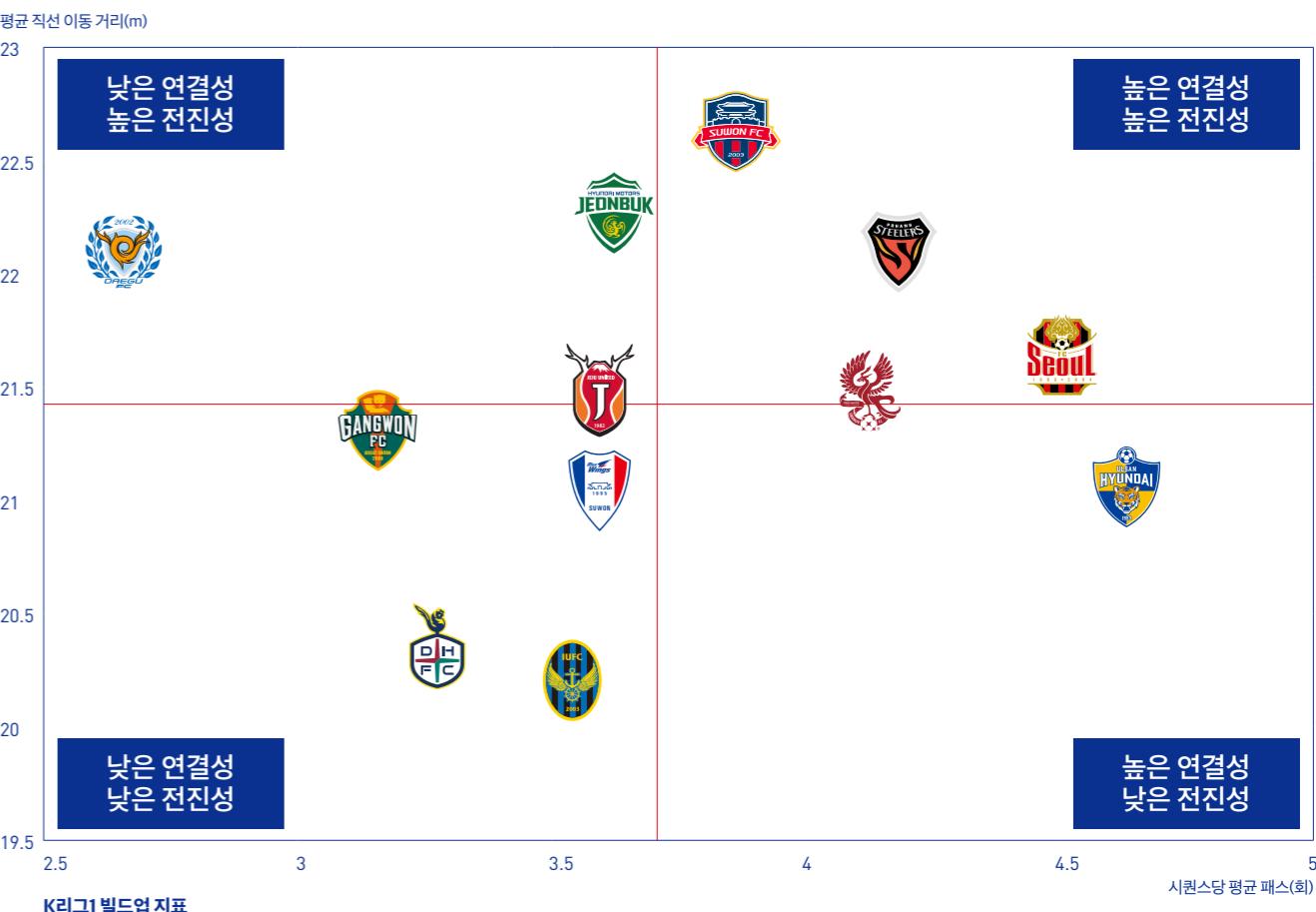


울산  
울산은

**울산은 2023년도 밀도 높은 점유  
축구를 구사했다.** K리그1에서 가장 높은 점유  
율과 가장 높은 시퀀스당 평균 패스 횟수를 기  
록했다. 전방 선수들이 유기적 역할 분담을 이  
룬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민규·박코·  
아타루·루빅순 등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많다.  
항상 누군가 상대 수비 라인을 누른다면 그 밀  
에서 공간을 얻는 식의 공간 분배를 보였다.



**DEUBL** 서울은 꽤나 유연한 공격 형태를 보였다. 김진규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백 스리와 백 포 대형을 혼용했다. 키워드는 ‘유기성’과 ‘박스 내 숫자’다. 중원에서는 유기적으로 움직여 볼을 전진시키고 공격 지역 1/3 지점에서는 상대 박스에 항상 많은 숫자를 뒀다. 측면 수비수와 미드필더 모두가 저돌적으로 쇄도해 들풀을 위한 위치를 점했다.



## 최대 기대 위협(xT) 선수 두현석

'기대 위협(xT, Expected Threat)'이란 해당 선수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공격을 전개하였는가를 의미하는 지표다. 팀의 공격 전개에 많은 관여를 할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2023년 K리그1에서는 광주의 두현석이 가장 높은 기대 위험 지수를 기록했다. 총 4.79의 수치다. 지난 3년간 연속 1위를 달성해왔던 올

산의 김태환을 넘어서고 이젠 두현석이 최대 기대 위협 선수 자리에 올랐다. K리그1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가 바뀌었다. 두현석의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팀 내 비중이다. 울산과 비교해보자. 2023 울산은 여려 선수들이 기대 위험 수치를 골고루 분할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영권·설영우·이청용 등이 그렇다. 이들은 모두 최대 기대 위험 수치 2~4위 자리에 위치한 선수들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팀에 많은 기여를 펼쳤다는 뜻이다. 그러나 광주는 두현석이 대부분의 기대 위험을 기록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37.59 중 4.79의 수치다. 광주 공격의 13%가량을 두현석이 분담했다. 2위 이희균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두현석은 3.07의 수치를 기록한 이희균보다 1.5배에 가까운 기대 위험 수치를 기록했다.



## 최대 기대 위협의 비결, 다재다능함

두현석의 최대 강점은 다재다능함이다. 측면 수비와 윙어, 그리고 미드필더까지도 모두 소화하는 선수다. 이정호 감독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풀백으로 뛰기 시작했다. 광주 축구의 핵심은 좋은 공간을 차지하는 측구다. 좋은 공간이 있으면 누구든 그 공간으로 빠르게 들어가 선점하는 것이 '정효볼'의 요지다. 공격수와 수비수의 구분은 없다. 누구나 다 같이 수비하고 공격해야 한다. 두현석은 2022 시즌부터 광주의 전술적 틀에 잘 녹아드는 모습을 보였다.

두현석은 공간 인지 능력도 뛰어나다. 경기 중 '좋은 공간'이 펼쳐진다면 여지없이 그곳으로 빠르게 진입해 볼을 받아낸다. 두현석은 어느 지역에서 볼을 받든 해당 지역에서 능숙하게 풀어가는 능력을 갖춘 선수다. 앞서 언급한 거처럼 중앙·측면·후방·전방 등 모든 지역에서 활약했던 경험이 도움된다.

두현석의 가장 좋은 예시는 7라운드 대구전 공격 장면이다. 영상 속 상황을 되돌아보자. 광주가 백 포 대형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이때 두현

석은 오른쪽 풀백 자리에 위치해있다. 볼이 왼쪽으로 전개되자 오른쪽 미드필더인 정호연이 측면으로 빠진다. 이때 두현석은 측면으로 나오는 정호연을 보고 앞 중원 공간을 삼킬 채비를 했다. 정호연이 상대 윙어를 끌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대의 시야 뒤에서 프리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광주의 추구하는 '좋은 공간'인 셈이다. 두현석은 주저 없이 그곳으로 전진해 중원에 서 공격의 연결 고리가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현석은 앞으로 볼을 전개한 이후 미드필더 자리에서 그대로 박스 안 침투를 시도했다. 숫자를 살려 공격을 이어나가기 위함이다. 그 결과 광주의 오른쪽 윙어인 주영재가 상대 박스에 도달했을 때 컷백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두현석의 영리한 포지셔닝이 공격 시작부터 끝까지 큰 영향을 끼쳤던 장면이다.



# GOALKEEPING 골키퍼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한 광주와 전북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높은 선방지수다.

광주와 전북은 K리그1에서 압도적인 선방 지수를 기록하며 낮은 실점률을 자랑했다. 반면 K리그1 역대 최다 실점을 기록한 수원FC는 선방 지수에서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66.7xGOT의 수치 속에서 75골(자책골 제외)을 허용했다. 허용한 기회도 많은데 더해 골키퍼들의 활약도 따라주지 못한 것이다.



| 팀    | 선방지수  |
|------|-------|
| 광주   | +4.47 |
| 전북   | +3.74 |
| 제주   | +2.04 |
| 포항   | -0.34 |
| 인천   | -0.38 |
| 서울   | -1.19 |
| 대전   | -1.54 |
| 울산   | -1.97 |
| 강원   | -4.80 |
| 대구   | -5.60 |
| 수원   | -5.75 |
| 수원FC | -8.25 |

이번 시즌 K리그1 12개 팀들의 선방 지수 순위

'선방 지수'란 상대 xGOT에서 실제 실점 수를 뺀 값이다. xGOT는 상대 기대 득점 중 유효 슛에만 해당하는 값을 가리키는 수치다. xGOT에서 실제 실점 수를 뺀다면 자연스레 해당 골키퍼가 얼마만큼의 골을 막았는지를 알 수 있다.

최고 선방 지수를 기록한 광주와 전북은 2023 시즌 2명의 골키퍼를 운영했다. 광주는 김경민과 이준, 전북은 김정훈과 정민기다. 두 팀 모두 서브 골키퍼가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특징이 있다. 이중 눈에 띄는 팀은 전북이다. 전북은 두 골키퍼 모두가 리그 최고 선방률 1-2위에 위치하는 기염을 토했다. 79.5%의 김정

훈이 1위를 달성했고 78.3%의 정민기가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은 133회의 선방을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최저 실점률을 달성했다. 한편 리그 전반적으로는 선방 지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 시즌 +0.21의 수치에서 -1.63으로 줄었다. 반면 두 시즌간의 평균 선방률은 비슷했다. 68.1%와 67.1%로 단 1%의 차이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골키퍼들이 상대 공격을 막는 빈도는 비슷했으나 2023년은 보다 쉬운 슛 찬스를 실점으로 허용하는 일이 잦았다.

선방 지수의 표준편차도 주목해 볼 만하다. 2023년 K리그1의 선방 지수 표준편차는 직전 연도에 비해 월등히 낮게 기록됐다. 각 팀의 골키퍼 차이가 2022년만큼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2023시즌은 골키퍼들의 활약으로 경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부문에서 2022시즌 1위였던 인천은 7점이 넘는 선방 지수를 기록했으나, 2023시즌 1위였던 광주의 수치는 5점을 채 넘기지 못했다.

## 격이 다른 골키퍼 활용, 울산과 서울

울산과 서울은 리그 내에서 격이 다른 골킥 성공률을 보였다. 두 팀 모두 80%에 근접했다. 다른 팀들이 50%대의 성공률을 오갈 때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 내에서 펼쳐지는 대부분의 골킥을 성공으로 연결했다.

비결은 단연 단거리 골킥이다. 울산과 서울은

| 팀    | 골킥 성공률 |
|------|--------|
| 울산   | 80.8%  |
| 서울   | 77.0%  |
| 전북   | 70.1%  |
| 수원FC | 66.9%  |
| 광주   | 66.5%  |
| 포항   | 66.2%  |

이번 시즌 K리그1 골킥 성공률 상위 6팀

매우 높은 비중의 단거리 골킥을 기록했다. 각각 35.1%와 37.1%의 수치다. 두 팀은 상대가 박스 지점에서부터 압박을 시작하더라도 골킥으로부터 빌드업을 풀어가려는 시도를 보였다.

인상적인 선수는 서울의 백종범이다. 백종범은 올해 K리그1 골키퍼 중 가장 많은 단거리 패스를 기록했다. 경기당 8.84회의 수치다. 골킥 성공률도 2번째로 높았다. 2023시즌의 서울은 백종범을 통해 후방에서부터 계속 빌드업을 풀어가려는 시도를 보였다.

백종범의 최대 강점은 침착성이다. 박스 안에서 압박을 받을 때도 주변 수비수들과 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상대 선수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볼을 소유한다는 게 핵심이다. 먼 거리를 겨냥하는 킥 능력도 갖췄다. 서울은 백종범으로 상대 박스 지점 압박을 탈피하고 전방 빈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 04

## TEAM PROFILES

K리그 1

|         |         |
|---------|---------|
| 울산현대    | FC서울    |
| 포항스틸러스  | 대전하나시티즌 |
| 광주FC    | 제주유나이티드 |
| 전북현대    | 강원FC    |
| 인천유나이티드 | 수원FC    |
| 대구FC    | 수원삼성    |

K리그 2

|          |         |
|----------|---------|
| 김천상무     | 충북청주FC  |
| 부산아이파크   | 성남FC    |
| 김포FC     | 충남아산FC  |
| 경남FC     | 서울이랜드FC |
| 부천FC1995 | 안산그리너스  |
| FC안양     | 천안시티FC  |
| 전남드래곤즈   |         |

이 장의 기록은 K리그1 정규라운드(38경기), K리그2 정규라운드(36경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팀별 페이지 상단의 QR코드를 인증하면 KEY FEATURES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현대

## SUMMARY

2년 연속 K리그1 우승. 왕조로 나아가는 길을 닦았다. 플랜 A에 B까지 더한 울산은 어떤 위기 도 극복한다. 그래서 '왕'이었다.



감독 | 홍명보

생년월일 | 1969. 02. 12

|      | 승  | 무  | 패  |
|------|----|----|----|
| 2023 | 23 | 7  | 8  |
| 통산   | 66 | 28 | 20 |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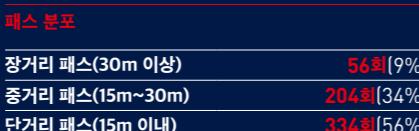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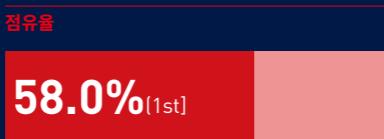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조수혁   | 2   | 206     | 4  | 0   |
|     | 조현우   | 36  | 3,558   | 38 | 13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김기희   | 27  | 2,471   | 0  | 0   |
|     | 김영권   | 32  | 2,975   | 1  | 0   |
|     | 김태환   | 21  | 1,810   | 1  | 1   |
|     | 설영우   | 32  | 2,811   | 3  | 4   |
|     | 이명재   | 30  | 2,665   | 0  | 5   |
|     | 임종은   | 5   | 284     | 0  | 0   |
|     | 장시영   | 10  | 257     | 1  | 0   |
|     | 정승현   | 23  | 1,919   | 1  | 0   |
|     | 조현택   | 30  | 690     | 0  | 0   |
| MF  | 강윤구   | 19  | 600     | 1  | 1   |
|     | 김민혁   | 32  | 2,159   | 2  | 3   |
|     | 김성준   | 6   | 381     | 0  | 1   |
|     | 루빅손   | 27  | 1,769   | 6  | 3   |
|     | 바코    | 35  | 2,456   | 11 | 1   |
|     | 박용우   | 19  | 1,528   | 1  | 2   |
|     | 보아니치  | 9   | 391     | 0  | 1   |
|     | 아타루   | 21  | 1,444   | 3  | 3   |
|     | 엄원상   | 28  | 1,930   | 4  | 4   |
|     | 이규성   | 32  | 2,260   | 0  | 2   |
|     | 이재욱   | 2   | 84      | 0  | 0   |
|     | 이청용   | 34  | 1,705   | 1  | 2   |
|     | 황재환   | 11  | 265     | 2  | 0   |
| FW  | 김지현   | 5   | 163     | 0  | 0   |
|     | 마틴 아담 | 30  | 1,405   | 5  | 4   |
|     | 윤일록   | 1   | 48      | 0  | 0   |
|     | 이동경   | 9   | 549     | 2  | 1   |
|     | 주민규   | 36  | 2,621   | 17 | 2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9.1세 | 74회(4th) | 0회    | 0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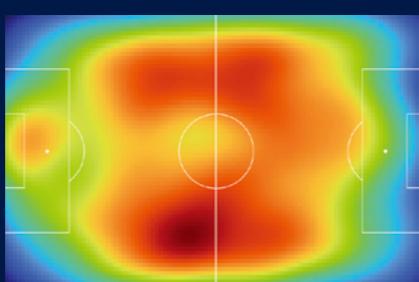
## PLAYER STATS

|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주민규   | 17골   | 35회 | 14.9골 |
| 바코    | 11골   | 35회 | 9.4골  |
| 루빅손   | 6골    | 18회 | 4.0골  |
| 도움    | 키пас스 | 크로스 |       |
| 이명재   | 5회    | 39회 | 231회  |
| 마틴 아담 | 4회    | 19회 | 0회    |
| 엄원상   | 4회    | 23회 | 61회   |

## AVERAGES



## 볼 획득 히트맵



## PPDA(압박 강도)



## 활동량(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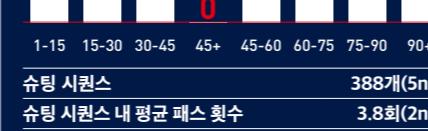
## TEAM STATS

## 득점 분류



## 기대득점 xGOT

## 시간대별 득점



## 슈팅 시퀀스

388개(5nd)

## 슈팅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3.8회(2nd)

## 슈팅 시퀀스 비율

8.0%(5th)

## xGOT 허용

## 기대실점

## xGOT 허용

## KEY FEATURES

## 1. 공격 시 4-2-3-1. 풀백 높은 위치. 전방 4명의 공격 라인에서 유기적 역할 분담.

## 2. 공격 지역 1/3 지점에서 양쪽 풀백 적극 오버래핑. 윙어가 상대 축면DF 끌어들이면 축면 공간 활용.

## 3. 전방 5-6명의 선수 배치, 1선 볼 투입 시 FW들간 뛰어난 원터치 플레이.

## 4. 후반전서 마틴 아담-주민규 2명의 타깃맨 활용하는 경향. 롱 볼 플레이 적극 시도.

## 5. 수비 대형 4-4-2. 볼 주위 지역 좁은 간격 배치. 능동적이고 빠른 압박으로 볼 탈취.

## 6. 수비 시 백 스리 옵션 보유. 5-4-1 지역 수비. 최후방 라인의 넓은 범위로 안정성 확보.

## 7. 중앙 MF 쪽에서 수비 문제. 중원에서 상대 공격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 존재.

## 8. 수비 범위로 상대 빌드업 제한.

## 9. 풀백 넓게 위치해 축면 공간 점유.

## 10. 중앙 MF가 옆으로 내려오고 풀백들이 전진하는 패턴.

## 11. 공격 라인 쪽에서 역동적 움직임으로 공간 창출.

## 12. 공격 지역 1/3 지점에서 폭넓은 경기장 활용. 터치라인 쪽 선수로 빠른 축면 전개.

## 13. 수비 시 4-4-2. 투톱 라인으로 중앙 옵션 막고 상대가 축면 전개 시 대인 마크 형태로 대응.

## 14. 전방 압박 시 투톱-MF라인간 뛰어난 역할 분담. 투톱의 넓은 범위로 상대 빌드업 제한.

## 15. 중거리슛에서 실점 자주 허용. 박스 바깥 실점 비중이 가장 높은 팀. 전체 40실점 중 13실점.



## 포항스틸러스

## SUMMARY

2023년에도 자본의 눈리를 거느른 클럽. 사령탑의 뛰어난 역량과 선수들의 강인한 의지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음을 또 증명했다.



감독 | 김기동

김기동 생년월일 | 1972. 01. 12

|      | 승  | 무  | 패  |
|------|----|----|----|
| 2023 | 16 | 16 | 6  |
| 통산   | 73 | 50 | 48 |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황인재 | 38  | 3,785   | 40 | 12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그伦트 | 32  | 3,063   | 4  | 0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 Kim Young-hwan | 10 | 3,439 | 0       | 0  | 0  |
| 박건우            | 2  | 57    | 0       | 0  | 0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 박승욱 | 32 | 3,002 | 1       | 1  | 1  |
| 박찬용 | 26 | 1,892 | 0       | 0  | 0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 심상민 | 21 | 1,903 | 0       | 2  | 0  |
| 최현웅 | 2  | 11    | 0       | 0  | 0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 | --- | --- | --- | --- | --- |



## 광주 FC

## SUMMARY

"효자와 아이들이 사고를 쳤다. 선수들은 라운드마다 고속 성장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기적이 아닌 '노력의 결과'라는 것."



감독 | 이정호

생년월일 | 1975. 07. 23

| 이정호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6 | 11 | 11 |
| 통산        | 41 | 22 | 15 |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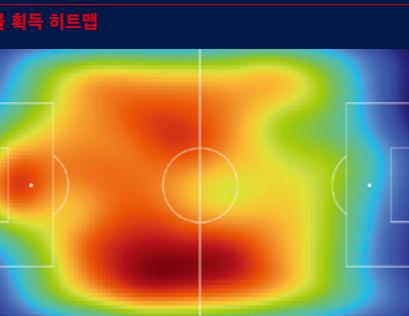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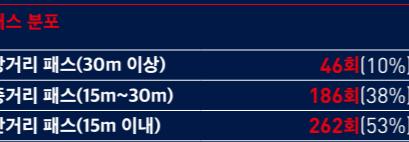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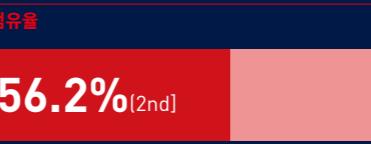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김경민 | 26  | 2,526   | 22 | 12  |
|     | 이준  | 13  | 1,216   | 13 | 3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김경재 | 3   | 40      | 0  | 0   |
|     | 김승우 | 5   | 346     | 0  | 0   |
|     | 김한길 | 29  | 1,619   | 3  | 0   |
|     | 박한빈 | 12  | 453     | 1  | 0   |
|     | 아론  | 20  | 1,376   | 0  | 0   |
|     | 안영규 | 32  | 3,047   | 2  | 2   |
|     | 이민기 | 28  | 2,243   | 1  | 1   |
|     | 이상기 | 19  | 777     | 0  | 0   |
|     | 이우뜸 | 2   | 23      | 0  | 0   |
|     | 티모  | 27  | 2,464   | 3  | 1   |
| MF  | 엄지성 | 28  | 2,150   | 5  | 3   |
|     | 오후성 | 6   | 143     | 0  | 0   |
|     | 이강현 | 26  | 1,251   | 1  | 1   |
|     | 이순민 | 35  | 3,088   | 1  | 2   |
|     | 정호연 | 34  | 3,070   | 2  | 4   |
| FW  | 두현석 | 38  | 3,423   | 2  | 7   |
|     | 베키  | 10  | 567     | 2  | 0   |
|     | 산드로 | 12  | 797     | 1  | 2   |
|     | 신창무 | 9   | 148     | 0  | 0   |
|     | 아사니 | 33  | 2,319   | 7  | 3   |
|     | 이건희 | 26  | 857     | 5  | 0   |
|     | 이희균 | 34  | 2,291   | 2  | 1   |
|     | 정지훈 | 12  | 460     | 0  | 0   |
|     | 주영재 | 8   | 278     | 1  | 0   |
|     | 토마스 | 28  | 1,706   | 2  | 1   |
|     | 하승운 | 18  | 679     | 2  | 1   |
|     | 허율  | 33  | 1,763   | 3  | 3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7.0세<br>7th | 80회(2nd) | 2회    | 0회 |

## PLAYER STATS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아사니 | 7    | 23   |
| 엄지성 | 5    | 27   |
| 이건희 | 5    | 9    |
| 도움  | 키пас | 크로스  |
| 두현석 | 7    | 44   |
| 아사니 | 4    | 36   |
| 엄지성 | 3    | 17   |

## AVERAGES



## PPDA(압박 강도)

9.2

7th

## 공격지역 획득

13.6회

11th

## 활동량(km)

117.8

2nd

## 스프린트(회)

2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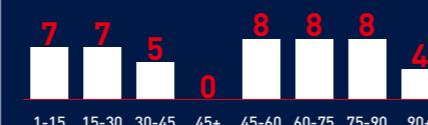
6th

## TEAM STATS

## 득점 분류



## 시간대별 특징



## KEY FEATURES

- 공격 시 매우 넓은 폭의 포메이션 활용. 상대 수비 대형에 상응하는 형태로 전술적 우위 형성.
- 후방 빌드업 시 의도적으로 상대 공격 라인 끌어들이는 성향.
- 공격 시 적극적 포지션 스위칭. 형태는 일관적이되 선수들간 유기적 움직임 시도.
- 공격 지역 1/3 지점서 적극적 하프 스페이스 공략.
- 수비 시 4-4-2. 수비 전반적 역할 분담과 압박 타이밍이 매우 뛰어난 편.
- MF 라인의 훌륭한 백 포 커버 위치. 벌어지는 간격 지속적 커버.
- 상대의 폭넓은 역습에 취약한 문제. 반대 진영 쪽 공간 노출.



## 전북 현대

## SUMMARY

그래도 전북은 전북이었다. 흔들리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아시아행 티켓은 끊어졌다. 페트레스코 감독의 전북은 내년이 진짜다.



감독 | 페트레스코

생년월일 | 1967. 12. 22

| 페트레스코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8 | 6 | 6 |

통산

8

6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도움

## 구자룡

## 김문환

## 김진수

## 박진섭

## 박창우

## 안현범

## 윤영선

## 정우재

## 정태욱

## 최철순

## 페트라색

## 홍정호

## 강상윤

## 김건웅

## 류재문

## 맹성웅

## 백승호

## 보아텡

## 아마노 준

## 오재혁

## 이민혁

## 이수빈

## 한교원

## 구스타보

## 문선민

## 박재용

## 송민규

## 안드레 루이스

## 이동준

## 이준호

## 조규성

## 하파 실바

## 구스타보

## 문선민

## 박재용

## 송민규

## 아마노 준

## 한교원

## 구스타보

## 문선민

## 박재용

## 송민규

## 아마노 준

## 한교원

## 구스타보

## 문선민

## 박재용

## 송민규

## 아마노 준

## 한교원

## 구스타보

## 문선민

## 박재용

## 송민규

## 아마노 준

## 한교원

## 구스타보



## 인천 유나이티드

## SUMMARY

이전 경쟁을 하는 약체가 아니다. 상위권에서 격투를 벌일 어엿한 능력을 갖춘 클럽이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도 무섭다.



감독 | 조성환

생년월일 | 1970. 10. 16

| 조성환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4  | 14 | 10 |
| 통산        | 107 | 81 | 95 |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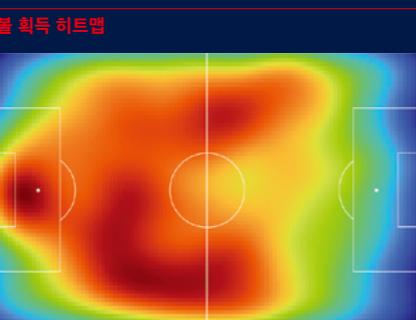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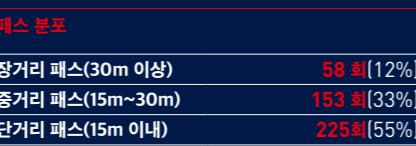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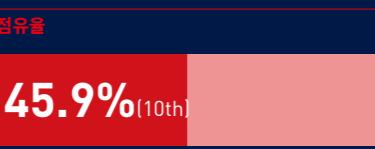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김동현 | 24    | 2,415   | 26 | 8   |
| 민성준   | 5   | 496   | 4       | 2  |     |
| 이태희   | 9   | 880   | 12      | 2  |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강윤구 | 6     | 348     | 0  | 0   |
| 권한진   | 18  | 1,585 | 1       | 0  |     |
| 김건희   | 9   | 335   | 0       | 0  |     |
| 김동민   | 27  | 2,631 | 0       | 0  |     |
| 김연수   | 22  | 1,938 | 0       | 0  |     |
| 김준엽   | 28  | 2,405 | 1       | 2  |     |
| 델브리지  | 25  | 2,153 | 0       | 0  |     |
| 문지환   | 27  | 1,647 | 2       | 0  |     |
| 오반석   | 27  | 2,589 | 3       | 0  |     |
| 임형진   | 1   | 101   | 0       | 0  |     |
| 정동운   | 28  | 1,434 | 0       | 1  |     |
| MF    | 이동혁 | 32    | 2,308   | 1  | 3   |
| 김세훈   | 1   | 14    | 0       | 0  |     |
| 김현서   | 1   | 25    | 0       | 0  |     |
| 민경현   | 27  | 1,897 | 0       | 1  |     |
| 박진홍   | 2   | 81    | 0       | 0  |     |
| 박현빈   | 5   | 289   | 0       | 0  |     |
| 신진호   | 17  | 1,526 | 1       | 3  |     |
| 여름    | 2   | 86    | 0       | 0  |     |
| 을포쿠   | 24  | 1,452 | 3       | 2  |     |
| 이동수   | 6   | 250   | 0       | 0  |     |
| 이명주   | 25  | 2,120 | 2       | 1  |     |
| 최우진   | 5   | 349   | 1       | 1  |     |
| FW    | 김대중 | 6     | 111     | 0  | 0   |
| 김민석   | 18  | 535   | 2       | 0  |     |
| 김보섭   | 33  | 2,100 | 3       | 4  |     |
| 무고사   | 9   | 645   | 3       | 1  |     |
| 박승호   | 9   | 559   | 1       | 0  |     |
| 송시우   | 7   | 218   | 0       | 1  |     |
| 에르난데스 | 33  | 2,462 | 6       | 5  |     |
| 제르소   | 34  | 2,246 | 7       | 6  |     |
| 천성훈   | 18  | 987   | 6       | 0  |     |
| 홍시후   | 12  | 473   | 2       | 1  |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7.1세 | 66회(9th) | X2    | 2회 |

## PLAYER STATS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 제르소   | 7   | 21   | 7.9 |
| 에르난데스 | 6   | 16   | 5.7 |
| 천성훈   | 6   | 11   | 3.9 |
| 도움    | 키래스 | 크로스  |     |
| 제르소   | 6   | 24   | 58  |
| 에르난데스 | 5   | 24   | 41  |
| 김보섭   | 4   | 19   | 50  |

## AVERAGES



## PPDA(압박 강도)

12.1  
11th

## 공격지역 획득

13.9회  
9th

## KEY FEATURES

- 공격 시 경기에 따라 2가지 대형 훈용. 3-4-3과 3-5-2.
- 3-5-2가 더 간결한 성향.
- 중앙 MF 김도혁의 적극적 전방 쇄도로 득점 기회 창출.
- 공격 시 양쪽 왕복으로 폭넓게 경기장 활용. 득점력 갖춘 왕복으로 공격 전개.
- 에르난데스·제르소 등 빠른 발 지닌 톱 자원 보유. 중앙에 배치해 직접적으로 상대 수비 공략.
- 수비 시 5-4-1과 5-3-2 활용. MF 라인 매우 좁은 간격. 상대 중앙 옵션 제한.
- 백 파이브 라인의 대인 수비 능력이 뛰어난 편. 간격 유지와 대인 마크간 명확한 상황 구분.

## 활동량(km)

116.8  
3rd

## 스프린트(회)

204.7  
7th

## 대구 FC

## SUMMARY

'미미' 깊은 시즌. 세징야가 없으면 약하다는 편견을 깼다. 어느 때보다 원 팀이었던 대구는 팀으로 싸워 파이널 A에 합류했다.



감독 | 최원권

생년월일 | 1981. 11. 08

| 최원권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3 | 14 | 11 |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오승훈 | 21    | 2,028   | 25 | 6   |
| 최영은  | 18  | 1,717 | 18      | 7  |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김강산 | 25    | 1,474   | 1  | 0   |
| 김진혁  | 38  | 3,597 | 1       | 1  |     |
| 이원우  | 2   | 39    | 0       | 0  |     |
| 이진용  | 31  | 2,056 | 0       | 1  |     |
| 장성원  | 29  | 1,616 | 1       | 4  |     |
| 조진우  | 33  | 3,081 | 0       | 1  |     |
| 케이타  | 26  | 1,325 | 2       | 0  |     |
| 홍정운  | 33  | 3,207 | 0       | 1  |     |
| 홍철   | 29  | 2,267 | 1       | 6  |     |
| 황재원  | 33  | 3,082 | 1       | 3  |     |
| MF   | 고재현 | 37    | 3,283   | 9  | 1   |
| 김희승  | 2   | 19    | 0       | 0  |     |
| 박세진  | 33  | 1,716 | 1       | 1  |     |
| 벨룰라  | 11  | 897   | 1       | 0  |     |
| 세라토  | 11  | 346   | 0       | 0  |     |
| 이용래  | 29  | 1,317 | 0       | 1  |     |
| FW   | 김영준 | 9     | 238     | 0  | 0   |
| 바셀루스 | 31  | 1,917 | 5       | 1  |     |
| 박용희  | 1   | 7     | 0       | 0  |     |
| 세징야  | 23  | 2,007 | 8       | 5  |     |
| 에드가  | 34  | 2,809 | 9       | 3  |     |
| 이근호  | 32  | 986   | 2       | 1  |     |
| 이종훈  | 2   | 35    | 0       | 0  |     |

## TEAM STATS

| 득점 분류      | 득점        | 득점%      |
|------------|-----------|----------|
| 9 골 (20%)  | 7 골 (15%) | 4 골 (9%) |
| 12 골 (26%) |           |          |
| 11 골 (24%) |           |          |

| 기대득점     | 득점       | 득점%     |
|----------|----------|---------|
| 2 골(11%) | 2 골(11%) | 1 골(2%) |
| 40.9골    | 40.9골    | 44.0골   |
| 41.6골    | 41.6골    | 44.0골   |

| 총 득점 | 득점   | 득점%  |
|------|------|------|
| 46 골 | 46 골 | 46 골 |

| 득점 분류 | 득점 | 득점% |
| --- | --- | --- |





</tbl\_struct



## FC 서울

## SUMMARY

아쉬움 많은 시즌이었다. 그래도 철학은 일관했다. 주도하는 축구를 피치에 구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2024년이 기대된다.



감독 | 김진규(대행)

생년월일 | 1985. 02. 16

| 김진규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4 | 4 | 3 |
| 통산        | 4 | 4 | 3 |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백종범   | 26  | 2,588   | 37 | 5   |
|     | 최철원   | 11  | 1,109   | 10 | 3   |
|     | 황성민   | 1   | 103     | 2  | 0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권완규   | 8   | 353     | 0  | 0   |
|     | 김주성   | 38  | 3,697   | 2  | 1   |
|     | 김진야   | 29  | 1,973   | 0  | 1   |
|     | 박성훈   | 1   | 103     | 0  | 0   |
|     | 박수일   | 36  | 2,942   | 1  | 3   |
|     | 이시영   | 15  | 687     | 0  | 2   |
|     | 이태석   | 30  | 2,374   | 0  | 1   |
|     | 이한범   | 18  | 1,650   | 0  | 1   |
|     | 황현수   | 14  | 421     | 0  | 0   |
|     | 고요한   | 6   | 242     | 0  | 4   |
|     | 기성용   | 35  | 2,934   | 2  | 2   |
|     | 백상훈   | 2   | 92      | 0  | 1   |
| MF  | 안재민   | 1   | 7       | 0  | 0   |
|     | 오스마르  | 35  | 3,295   | 2  | 0   |
|     | 윌리안   | 33  | 1,835   | 8  | 0   |
|     | 이승모   | 9   | 464     | 2  | 0   |
|     | 이승준   | 2   | 62      | 0  | 0   |
|     | 정현철   | 3   | 74      | 0  | 0   |
|     | 팔로세비치 | 35  | 2,716   | 4  | 0   |
|     | 한상호   | 17  | 863     | 1  | 0   |
|     | 한찬희   | 8   | 319     | 1  | 0   |
|     | 황도윤   | 1   | 50      | 0  | 0   |
|     | 강성진   | 7   | 266     | 2  | 0   |
|     | 김경민   | 9   | 178     | 2  | 0   |
|     | 김신진   | 27  | 1,670   | 5  | 1   |
| FW  | 나상호   | 38  | 3,252   | 12 | 4   |
|     | 박동진   | 15  | 555     | 3  | 2   |
|     | 비운존스  | 9   | 142     | 1  | 0   |
|     | 손승범   | 1   | 44      | 0  | 0   |
|     | 아이에쉬  | 3   | 73      | 0  | 0   |
|     | 윌류첸코  | 24  | 1,099   | 5  | 0   |
|     | 임상현   | 22  | 1,538   | 3  | 2   |
|     | 지동원   | 10  | 463     | 1  | 1   |
|     | 황의조   | 18  | 1,541   | 4  | 2   |
|     | 정한민   | 20  | 868     | 2  | 0   |
|     | 조영욱   | 37  | 2,968   | 6  | 7   |
|     | 지동원   | 10  | 463     | 1  | 1   |
|     | 황의조   | 18  | 1,541   | 4  | 2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6.8세 | 8th | 66회[8th] | 1회 |

## PLAYER STATS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나상호 | 12  | 24   |
| 윌리안 | 8   | 13   |
| 김신진 | 5   | 12   |
| 도움  | 키래스 | 크로스  |
| 나상호 | 4   | 39   |
| 기성용 | 4   | 45   |
| 박수일 | 3   | 14   |

활동량(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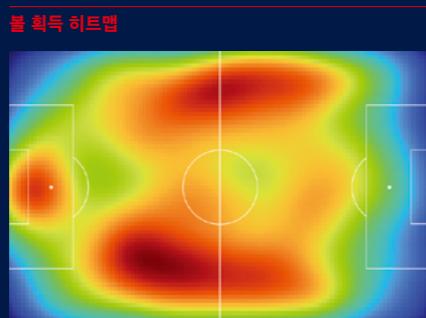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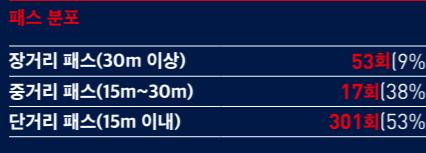
118.3  
1st216.8  
5th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4승 13무 11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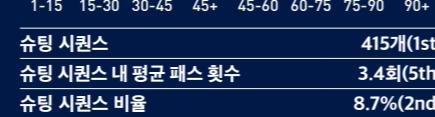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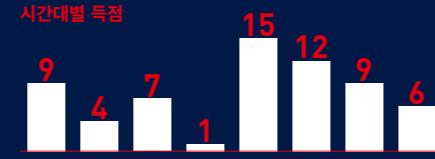
KEY FEATURES 영상 보기 &gt;



## AVERAGES



## TEAM STATS



## KEY FEATURES

- 빌드업 시 4-2-4와 3-2-5 혼용. 공격 지역 전개 시 상대 박스 안으로 많은 숫자 쇄도.
- 기성용·오스마르 등 후방에서 뛰어난 전진 패스 가능 자원 다수 보유.
- 공격 지역 1/3 지점에서 중앙 MF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향. 전방 전진 통한 수싸움 수행.
- 측면 지역 전개 시 적극적 스위칭 플레이. 선수 개개인의 자유로운 움직임 시도.
- 수비 시 4-4-2 혹은 4-5-1. 명확한 압박 패턴 통한 빌드업 제한.
- 역습 시 중앙 FW가 볼 지켜주고 양 윙어의 적극적 침투 구현.
- 상대 역압박에 취약한 문제. 볼 틸취 직후 공격 전개 끊기는 경향.



## 대전 하나 시티즌

## SUMMARY

승점팀이었지만 생존 이상의 업적을 남겼다. 약체처럼 축구한 게 아니라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티아고라는 퀄러도 배출했다.



감독 | 이민성

생년월일 | 1973. 06. 23

| 이민성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2 | 15 | 11 |
| 통산        | 54 | 34 | 32 |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이창근  | 38  | 3,782   | 58 | 7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강윤성  | 13  | 1,097   | 1  | 1   |
|     | 김민덕  | 26  | 2,337   | 2  | 0   |
|     | 김지훈  | 5   | 360     | 0  | 1   |
|     | 김현우  | 26  | 2,035   | 0  | 1   |
|     | 민준영  | 1   | 35      | 0  | 0   |
|     | 변준수  | 15  | 581     | 1  | 0   |
|     | 서영재  | 23  | 1,835   | 0  | 0   |
|     | 안톤   | 33  | 3,027   | 1  | 1   |
|     | 오재석  | 25  | 2,111   | 0  | 0   |
|     | 이동원  | 8   | 396     | 0  | 0   |
|     | 이현식  | 29  | 2,391   | 2  | 1   |
|     | 임덕근  | 20  | 1,271   | 0  | 0   |
|     | 임유석  | 3   | 215     | 0  | 0   |
|     | 조유민  | 21  | 1,947   | 2  | 1   |
| MF  | 김영욱  | 22  | 1,128   | 0  | 0   |
|     | 김인균  | 29  | 1,660   | 8  | 6   |
|     | 배준호  | 17  | 1,126   | 2  | 0   |
|     | 이진현  | 29  | 2,116   | 3  | 5   |
|     | 임은수  | 10  | 771     | 0  | 0   |
|     | 주세종  | 30  | 2,238   | 1  | 2   |
|     | 공민현  | 10  | 327     | 0  | 0   |
|     | 구텍   | 3   | 193     | 0  | 0   |
|     | 레안드로 | 24  | 1,293   | 2  | 7   |
|     | 마사   | 25  | 1,484   | 6  | 3   |
|     | 신상은  | 19  | 765     | 4  | 0   |
|     | 유강현  | 26  | 1,130   | 1  | 2   |
|     | 이선유  | 2   | 64      | 0  | 0   |
|     | 전병관  | 23  | 1,026   | 2  | 3   |
|     | 티아고  | 36  | 2,833   | 17 | 7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4.4세 | 11th | 79회   | 2회 |

## PLAYER STATS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 --- | --- |



</tbl\_r



## 제주유나이티드

## SUMMARY

부침이 적잖았으나 그래도 살아남았다. 유리 조나탄과 헤이스가 분전하며 팀을 끌었다.  
2000년생 서진수는 앞으로 주목할 선수.



감독 | 정조국(대행)

생년월일 | 1984. 04. 23

| 정조국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 | 3 | 3 |
| 통산        | 1 | 3 | 3 |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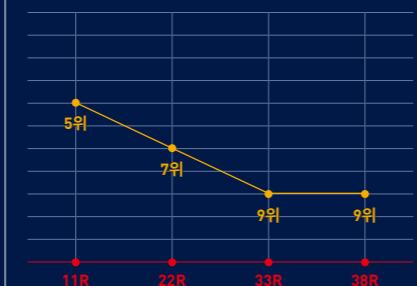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김근배    | 2   | 150     | 1  | 1   |
|     | 김동준    | 37  | 3,606   | 48 | 10  |
|     | 김형근    | 1   | 16      | 0  | 0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곽승민    | 8   | 133     | 0  | 0   |
|     | 김대환    | 20  | 276     | 0  | 0   |
|     | 김오규    | 30  | 2,778   | 1  | 0   |
|     | 김주원    | 11  | 908     | 0  | 1   |
|     | 송주훈    | 13  | 942     | 1  | 0   |
|     | 안태현    | 24  | 1,463   | 1  | 2   |
|     | 안현범    | 16  | 1,371   | 2  | 2   |
|     | 연재운    | 13  | 1,220   | 2  | 0   |
|     | 이주용    | 33  | 2,506   | 0  | 1   |
|     | 임창우    | 8   | 723     | 0  | 1   |
|     | 임채민    | 26  | 2,416   | 1  | 0   |
|     | 전성진    | 6   | 189     | 0  | 0   |
|     | 정운     | 25  | 2,155   | 2  | 0   |
| MF  | 구자철    | 16  | 1,282   | 0  | 1   |
|     | 권순호    | 12  | 357     | 0  | 0   |
|     | 김건웅    | 12  | 904     | 2  | 0   |
|     | 김봉수    | 35  | 2,819   | 2  | 0   |
|     | 이기혁    | 19  | 1,014   | 0  | 1   |
|     | 이창민    | 13  | 1,267   | 0  | 0   |
|     | 최영준    | 9   | 690     | 0  | 1   |
|     | 한종무    | 17  | 386     | 0  | 0   |
|     | 헤이스    | 36  | 3,076   | 8  | 5   |
| FW  | 김승섭    | 29  | 1,467   | 2  | 1   |
|     | 김주공    | 28  | 1,978   | 3  | 1   |
|     | 서진수    | 34  | 2,492   | 5  | 2   |
|     | 유리 조나탄 | 33  | 2,111   | 10 | 4   |
|     | 임동혁    | 5   | 48      | 0  | 0   |
|     | 조나탄 링  | 11  | 602     | 0  | 0   |
|     | 지상욱    | 9   | 118     | 0  | 0   |
|     | 진성욱    | 1   | 24      | 0  | 0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7.8세 | X2 | 73회[6th] | 1회 |

## PLAYER STATS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유리 조나탄 | 10  | 24   |
| 헤이스    | 8   | 38   |
| 서진수    | 5   | 20   |
| 도움     | 키래스 | 크로스  |
| 헤이스    | 5   | 69   |
| 유리 조나탄 | 4   | 18   |
| 서진수    | 2   | 15   |
| 전성진    |     | 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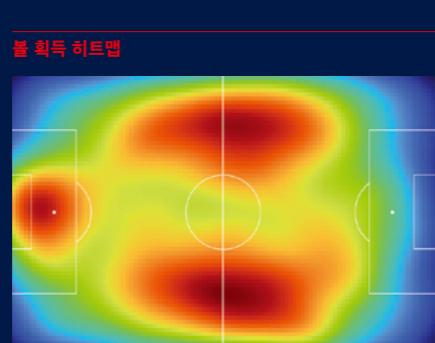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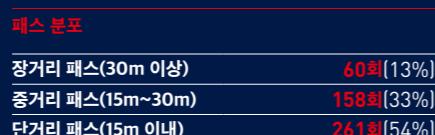
##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0승 11무 17패



## 주요 포메이션 | 4-4-2



## AVERAGES



## KEY FEATURES

- 공격 시 4-3-3과 4-2-3-1 혼용. 상황에 따라 중원 진영 유동적으로 구성하며 숫자 싸움.
- 윙어는 항상 넓고 깊게 위치. 중원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윙어로 직선 움직임 추구.
- 남기일 감독 체제에서 공격 시 유동적 3-4-3과 3-5-2 사용. 윙어 위치 변화로 윙백 오버래핑 루트 마련.
- K리그1 최다 코너킥 득점. 제주 42골 중 10골. 헤이스의 칙력이 핵심. 정확한 칙력으로 타깃 겨냥.
- 수비 시 4-4-2와 3-4-3 교차. MF 라인 지점에서 폭 좁은 간격으로 상대 중앙 빌드업 옵션 제한.
- 3-4-3 수비 시 상대 측면 빌드업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
- 상대 측면 크로스 시 상대 FW와 경합에서 밀리는 경향.

## KEY FEATURES

## PLAYER STATS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8.3     | X2    | 17.0회 |
| 5th     | 2nd   |       |
| 활동량(km) | 115.0 | 216.8 |
| 8th     | 4th   |       |



## 강원 FC

## SUMMARY

시즌 막판에 비로소 팀이 됐다. 살얼음판을 걷긴 했으나 꼭 필요한 순간 집단의 응집력이 최고조에 올랐다. 잔류할 만했다.



감독 | 윤정한

생년월일 | 1973. 02. 16

| 윤정한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4  | 11 | 6  |
| 통산        | 31 | 37 | 29 |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유상훈   | 20  | 1,983   | 24 | 1   |
|     | 이광연   | 18  | 1,798   | 17 | 7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강투지   | 16  | 1,453   | 1  | 0   |
|     | 김영빈   | 38  | 3,749   | 0  | 1   |
|     | 김우석   | 13  | 847     | 0  | 0   |
|     | 김진호   | 23  | 1,089   | 2  | 2   |
|     | 류광현   | 11  | 918     | 0  | 0   |
|     | 유인수   | 25  | 1,511   | 1  | 0   |
|     | 윤석영   | 30  | 2,639   | 0  | 0   |
|     | 이강한   | 3   | 53      | 0  | 0   |
|     | 이웅희   | 11  | 906     | 1  | 0   |
|     | 이지솔   | 6   | 364     | 1  | 0   |
|     | 임창우   | 13  | 1,089   | 0  | 1   |
|     | 정승용   | 22  | 1,805   | 1  | 0   |
|     | 조현태   | 8   | 152     | 0  | 0   |
|     | 케빈    | 1   | 12      | 0  | 0   |
|     | 강지훈   | 16  | 1,253   | 0  | 0   |
|     | 김대우   | 11  | 496     | 0  | 0   |
|     | 서민우   | 32  | 2,861   | 2  | 2   |
| MF  | 알리비에프 | 23  | 1,283   | 1  | 0   |
|     | 이승원   | 13  | 512     | 0  | 0   |
|     | 이재원   | 2   | 31      | 0  | 0   |
|     | 한국영   | 35  | 3,117   | 1  | 2   |
|     | 황문기   | 20  | 850     | 0  | 0   |
|     | 가브리엘  | 14  | 1,014   | 3  | 1   |
|     | 갈레고   | 33  | 1,669   | 2  | 0   |
|     | 김대원   | 35  | 2,734   | 4  | 4   |
|     | 디노    | 8   | 451     | 0  | 0   |
|     | 박상혁   | 24  | 829     | 4  | 0   |
|     | 야고    | 11  | 495     | 1  | 1   |
|     | 양현준   | 21  | 1,803   | 1  | 1   |
|     | 웰링턴   | 9   | 574     | 0  | 1   |
|     | 윤일록   | 5   | 218     | 0  | 0   |
|     | 이정협   | 18  | 1,019   | 2  | 1   |
|     | 조진혁   | 2   | 10      | 0  | 0   |

## KEY FEATURES

- 빌드업 시 4-2-4와 3-2-5 활용. 1선 깊은 위치로 슛자 확보, 간결한 공격 전개.
- 측면 공간 열릴 경우 빠른 크로스 시도. 1선 쪽에서 적극적 쇄도.
- 공격 시 빠르게 슛 처리하는 경향. 공간 존재할 경우 빠른 마무리.
- 공격 전환 시 윙어 내세워 빠른 전개. 선수 개개인의 적극적 반응.
- 수비 시 4-4-2와 4-5-1 대형 혼용. MF 라인에서 넓은 활동 범위로 중원 옵션 제한.
- 최용수 감독 체제에서 백 스리 기반의 견고한 수비 측구. 후방에 밀집해 공간



## 수원FC

## SUMMARY

끝내 디펜스 문제는 해결 못했다. 하지만 잔뼈 굵은 클럽답게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그들의 장기인 공격력을 끌어냈다.



감독 | 김도균

생년월일 | 1977. 01. 13

| 김도균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8  | 9  | 22 |
| 통산        | 52 | 31 | 60 |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노동건  | 23    | 2,287   | 43 | 3   |
|        | 박배중  | 12    | 1,187   | 24 | 1   |
|        | 이범영  | 3     | 305     | 9  | 1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김주연  | 9     | 464     | 0  | 0   |
|        | 김현준  | 10    | 782     | 0  | 0   |
|        | 박병현  | 10    | 797     | 0  | 0   |
|        | 박철우  | 29    | 1,901   | 0  | 0   |
|        | 신세계  | 30    | 2,685   | 0  | 0   |
|        | 오인표  | 30    | 1,410   | 2  | 2   |
| 우고 고메스 | 15   | 1,371 | 1       | 0  |     |
| 이용     | 25   | 2,111 | 1       | 1  |     |
| 이재성    | 7    | 649   | 0       | 0  |     |
| 잭슨     | 23   | 2,023 | 0       | 0  |     |
| 정동호    | 28   | 2,474 | 0       | 2  |     |
| 최보경    | 13   | 569   | 0       | 0  |     |
| MF     | 김규형  | 5     | 171     | 0  | 0   |
|        | 김도윤  | 7     | 128     | 0  | 0   |
|        | 김선민  | 29    | 2,016   | 0  | 0   |
|        | 김예성  | 5     | 84      | 0  | 0   |
|        | 무릴로  | 15    | 1,075   | 4  | 1   |
|        | 박주호  | 14    | 902     | 0  | 0   |
|        | 서승우  | 1     | 13      | 0  | 0   |
|        | 안치우  | 3     | 71      | 0  | 0   |
|        | 윤빛가람 | 35    | 3,304   | 8  | 5   |
|        | 이영재  | 14    | 1,366   | 1  | 3   |
|        | 정재용  | 13    | 533     | 0  | 0   |
|        | 황순민  | 8     | 395     | 0  | 0   |
| FW     | 강민성  | 12    | 269     | 0  | 0   |
|        | 김재현  | 1     | 10      | 0  | 0   |
|        | 김현   | 20    | 1,222   | 2  | 3   |
|        | 라스   | 22    | 1,981   | 9  | 5   |
|        | 로페즈  | 14    | 871     | 3  | 1   |
|        | 루안   | 3     | 145     | 0  | 1   |
| 바우테르손  | 10   | 481   | 1       | 0  |     |
| 양동현    | 1    | 50    | 0       | 0  |     |
| 이광혁    | 25   | 1,596 | 2       | 4  |     |
| 이대광    | 10   | 196   | 0       | 0  |     |
| 이승우    | 35   | 2,844 | 10      | 3  |     |
| 장재웅    | 27   | 574   | 0       | 1  |     |
| 정은우    | 1    | 17    | 0       | 0  |     |
| 정재윤    | 8    | 92    | 0       | 0  |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8.2세 | X2 | 63회[10th] | 2회 |

## PLAYER 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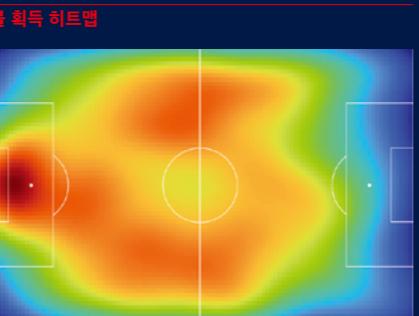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이승우  | 10  | 34   |
| 라스   | 9   | 16   |
| 윤빛가람 | 8   | 15   |
| 도움   | 기파스 | 크로스  |
| 라스   | 5   | 26   |
| 윤빛가람 | 5   | 57   |
| 이광혁  | 4   | 22   |

## AVERAGES

## 점유율



| 패스 분포 | 장거리 패스(30m 이상) | 중거리 패스(15m~30m) | 단거리 패스(15m 이내) |
|-------|----------------|-----------------|----------------|
|       | 68회(14%)       | 176회(36%)       | 242회(50%)      |
|       |                |                 |                |



## PPDA(압박 강도)



## 활동량(km)



## 공격지역 횟수



## 스프린트(회)



## TEAM 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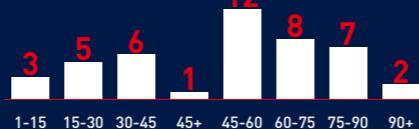
## 득점 분류



## 기대득점



## 시간대별 특징



## KEY FEATURES

- 공격 시 4-3-3. 양 풀백 높은 위치. MF 적극적 서포트로 측면 활용.
- 빌드업 시 타깃맨 애용. MF와 풀백 전진으로 간결한 전개.
- 이승우 전방 공격 시 자유로운 움직임. 적극적 2선 침투로 득점 기회 창출.
- 수비 시 폭넓은 포메이션 활용. DF와 MF 라인에서 꾸준하게 압박 시도.
- 수비 시 최후방 지점에서 상대 선수 놓치는 경향.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 노출.
- 최후방 라인에서 상대 공격에 대한 반응이 느린 경향.



## 수원삼성

## SUMMARY

2022년엔 승강 플레이오프를 경험했고 2023년엔 결국 강등이었다. 쇄신이 필요한 시기다. 신예 김주찬이 유일한 위안.



감독 | 염기훈(대행)

생년월일 | 1983. 03. 30

| 염기훈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3 | 2 | 2 |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안찬기 | 3   | 256     | 3  | 0   |
|     | 양형모 | 36  | 3,548   | 54 | 6   |
| DF  | 고명석 | 22  | 1,603   | 0  | 0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 GK  | 안찬기 | 3   | 256     | 3  | 0  |
|     | 양형모 | 36  | 3,548   | 54 | 6  |
| DF  | 고명석 | 22  | 1,603   | 0  | 0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 GK  | 안찬기 | 3   | 256     | 3  | 0  |
|     | 양형모 | 36  | 3,548   | 54 | 6  |
| DF  | 고명석 | 22  | 1,603   | 0  | 0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 GK  | 안찬기 | 3   | 256     | 3  | 0  |
|     | 양형모 | 36  | 3,548   | 54 | 6  |
| DF  | 고명석 | 22  | 1,603   | 0  | 0  |



## 김천상무

## SUMMARY

'레알은 레알.' 김천은 네 번째로 K리그2 우승에 성공했다. 병사들의 개인 역량과 지도자의 시너지가 하모니를 이뤘다.



감독 | 정정용

생년월일 | 1969. 04. 01

| 정정용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5 | 2  | 6  |
| 통산        | 45 | 36 | 45 |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강현무 | 9   | 849     | 8  | 2   |
|     | 김준홍 | 8   | 790     | 6  | 5   |
|     | 문경건 | 3   | 299     | 5  | 1   |
|     | 신송훈 | 17  | 1,622   | 18 | 5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강윤성 | 9   | 601     | 0  | 0   |
|     | 김윤성 | 10  | 580     | 0  | 2   |
|     | 김재우 | 33  | 2,977   | 1  | 2   |
|     | 김태현 | 21  | 1,562   | 0  | 0   |
|     | 박민규 | 25  | 2,151   | 1  | 0   |
|     | 윤종규 | 17  | 991     | 2  | 4   |
|     | 이상민 | 29  | 2,748   | 2  | 0   |
|     | 이유현 | 19  | 1,375   | 2  | 2   |
|     | 임승겸 | 15  | 993     | 0  | 0   |
|     | 최병찬 | 11  | 688     | 4  | 0   |
| MF  | 강현목 | 23  | 1,651   | 6  | 4   |
|     | 권창훈 | 8   | 312     | 2  | 1   |
|     | 김동현 | 21  | 1,158   | 2  | 0   |
|     | 김민준 | 28  | 1,493   | 6  | 4   |
|     | 김준범 | 14  | 526     | 1  | 0   |
|     | 김진규 | 32  | 2,363   | 6  | 5   |
|     | 김현욱 | 28  | 1,418   | 1  | 3   |
|     | 원두재 | 34  | 2,912   | 1  | 0   |
|     | 윤석주 | 16  | 755     | 0  | 1   |
|     | 이영재 | 13  | 1,115   | 1  | 2   |
|     | 이지훈 | 2   | 68      | 0  | 0   |
| FW  | 구본철 | 15  | 466     | 1  | 1   |
|     | 김지현 | 13  | 1,220   | 3  | 1   |
|     | 이영준 | 13  | 615     | 3  | 2   |
|     | 이준석 | 22  | 1,319   | 6  | 3   |
|     | 이중민 | 9   | 200     | 1  | 0   |
|     | 정치인 | 27  | 932     | 5  | 1   |
|     | 조영욱 | 28  | 2,408   | 13 | 5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5.0세<br>13th | 48회(12th) | 2회    | 0회 |

## PLAYER STATS

|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조영욱 | 13 | 31  | 12.4 |
| 김진규 | 6  | 15  | 4.4  |
| 강현목 | 6  | 16  | 5.1  |
|     | 도움 | 키래스 | 크로스  |
| 조영욱 | 5  | 26  | 40   |
| 김진규 | 5  | 44  | 113  |
| 강현목 | 4  | 19  | 28   |

KEY FEATURES 영상 보기 &gt;



## 부산아이파크

## SUMMARY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며 잠재력을 발산했다. 김천을 끝까지 위협하던 K리그2 최정상 레벨이었다. 이젠 2024년을 기다린다.'



감독 | 박진섭

생년월일 | 1977. 03. 11

| 박진섭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20 | 10 | 6  |
| 통산        | 72 | 54 | 61 |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22승 5무 9패



주요 포메이션 |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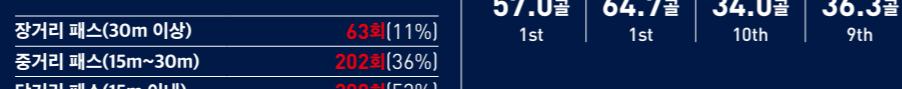
## AVERAGES

## TEAM 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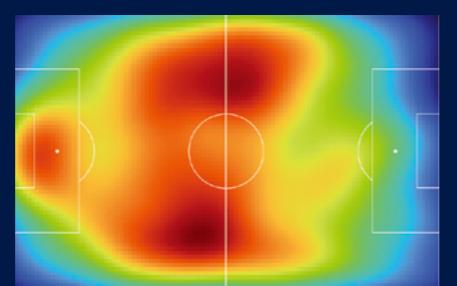
## 득점 분류



## 패스 분포



## 볼 획득 히트맵



## KEY FEATURES

- 빌드업 시 4-2-3-1과 4-3-3 훈용. 두 대형 훈용으로 유기적 중원 수asher 활용.
- 빌드업 시 유동적 대형. 측면 DF와 MF의 위치에 따른 효율적인 공간 활용.
- 전방 공격 시 높은 위치 활용. 후방 킥력 통한 빠른 전환 시도.
- 2 가지 텁 옵션 존재. 이영준의 타깃맨 or 강현목·조영욱·김현욱의 제로톱.
- 수비시 4-4-2. 종·횡적으로 타이트한 간격. 전방에서 강한 압박.
- 빌드업 시 종종 상대 압박에 취약한 문제.
- 경기 중반 가장 많은 득점. K리그2 내 압도적 수치.

## PPDA(압박 강도)

7.8

3rd

## 공격지역 획득

15.1회

6th

## 활동량(km)

113.1

12th

## 스프린트(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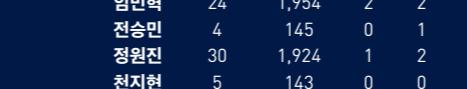
13th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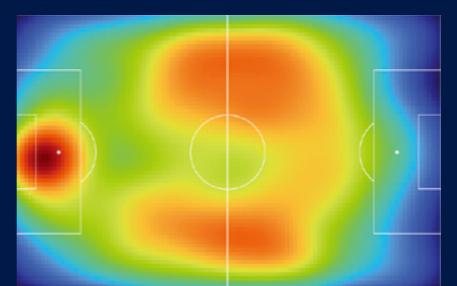
## 득점 분류



## 패스 분포



## 볼 획득 히트맵



## PLAYER STATS

|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라마스 | 10 | 38  | 8.1  |
| 김찬  | 8  | 19  | 7.0  |
| 페신  | 7  | 15  | 3.7  |
|     | 도움 | 키래스 | 크로스  |
| 라마스 | 8  | 43  | 98   |
| 최준  | 5  | 27  | 113  |
| 박세진 | 3  | 7   | 27   |

## 활동량(km)

115.5

4th

## 스프린트(회)

2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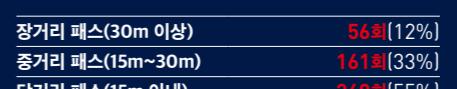
3rd

## AVERAGES

## 득점 분류



## 시간대별 특징



## KEY FEATURES

- 뚜렷한 포지셔닝 플레이. 백 포상대 시 2-3-5 대형. 1선 수적 우위 활용.
- 백스리 상대 시에는 2-2-6 대형. 1선 6명 배치 통한 수적 우위 형성.
- 공격 시 명확한 공격 대형. 선수들간 자유로운 위치 선정.
- 라마스 2선과 3선 자유롭게 오가는 역할. 라마스로 전 후방 수적 우위 활용.
- 수비 시 뚜렷한 대인 마크. 선수 개개인의 뚜렷한 마크로 강한 압박.
- 1선에서 적극적인 채널링. 이를 통해 1선 수적 열세 극복. 상대 빌드업 측면으로 유도.
- 후방 진영에서도 적극적 대인 마크 통한 볼 소유권 제한.

## PPDA(압박 강도)

7.6

2nd

## 공격지역 획득

16.4회

4th

## 활동량(km)

115.5



## 김포 FC

## SUMMARY

'고정운의 전사들은 담대한 수비력을 보여줬다. 백 스리로 상대하는 모든 팀을 질식시켰다. 디펜스만 꼽자면 K리그2 최고 수준.'



감독 | 고정운

생년월일 | 1966. 06. 27

| 고정운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7 | 13 | 8  |
| 통산        | 39 | 32 | 43 |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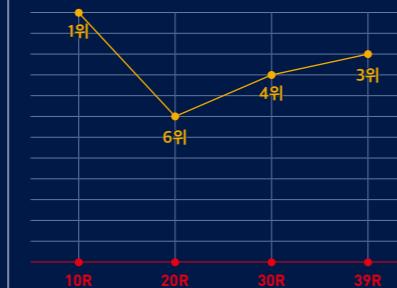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김민재 | 2   | 23      | 0  | 0   |
|     | 박청효 | 33  | 3,231   | 21 | 18  |
|     | 이상욱 | 3   | 287     | 4  | 1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김민호 | 25  | 1,943   | 0  | 0   |
|     | 김종민 | 4   | 95      | 0  | 0   |
|     | 김태한 | 33  | 3,231   | 1  | 0   |
|     | 박경록 | 24  | 1,784   | 1  | 0   |
|     | 박광일 | 31  | 2,068   | 2  | 1   |
|     | 송준석 | 16  | 602     | 0  | 0   |
|     | 심민용 | 1   | 24      | 0  | 0   |
|     | 이상혁 | 13  | 370     | 0  | 2   |
|     | 임도훈 | 1   | 60      | 0  | 0   |
|     | 조성권 | 34  | 3,306   | 0  | 0   |
| MF  | 김성민 | 31  | 1,714   | 1  | 2   |
|     | 김이석 | 32  | 2,747   | 4  | 0   |
|     | 김종석 | 21  | 1,271   | 2  | 3   |
|     | 배재우 | 10  | 486     | 0  | 0   |
|     | 서재민 | 33  | 2,682   | 2  | 0   |
|     | 이강연 | 9   | 659     | 0  | 0   |
|     | 이성재 | 11  | 446     | 0  | 0   |
|     | 장윤호 | 25  | 1,516   | 2  | 0   |
|     | 최재훈 | 16  | 1,288   | 0  | 0   |
| FW  | 루이스 | 34  | 3,125   | 16 | 4   |
|     | 민성연 | 12  | 313     | 0  | 1   |
|     | 손석용 | 26  | 1,191   | 1  | 1   |
|     | 송창석 | 12  | 550     | 0  | 1   |
|     | 윤민호 | 19  | 1,187   | 2  | 4   |
|     | 주녕요 | 29  | 1,644   | 3  | 2   |
|     | 파블로 | 18  | 1,100   | 2  | 5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6.3세 | 6th | 61회(6th) | 0회 |

## PLAYER STATS

|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루이스 | 16 | 32  | 11.5 |
| 김이석 | 4  | 15  | 2.7  |
| 주녕요 | 3  | 13  | 3.5  |
|     | 도움 | 키래스 | 크로스  |
| 파블로 | 5  | 18  | 43   |
| 루이스 | 4  | 33  | 65   |
| 윤민호 | 4  | 10  | 10   |

##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6승 7무 23패



## 주요 포메이션 | 3-4-3



KEY FEATURES 영상 보기 &gt;



## 경남 FC

## SUMMARY

'철학 뚝렷한 축구를 지속했다. 되도록 공을 소유해 능동적으로 상대 공간을 파헤쳤다. 워낙 젊은 팀이라 미래가 더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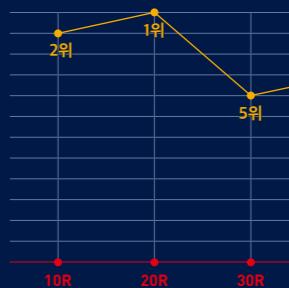


감독 | 설기현

생년월일 | 1979. 01. 08

| 설기현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5 | 13 | 10 |

##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5승 13무 10패



## 주요 포메이션 |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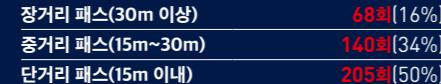
KEY FEATURES 영상 보기 &gt;

##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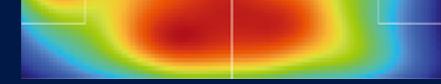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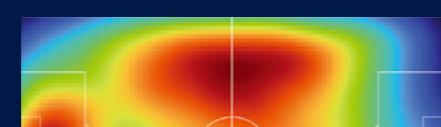
## 점유율



## 패스 분포



## 시간대별 특징



## 볼 획득 히트맵



## TEAM STATS

## 득점 분류



## 기대득점



## KEY FEATURES

- 공격 시 스리 톱 줍은 간격. 뛰어난 콤비네이션 플레이 능력.
- 윙백과 중앙 MF의 폭넓은 활동 범위가 특색. 공격 읍선으로 이어짐.
- 공격 지역 1/3 지점에서 선수 개개인의 적극적 침투 시도.
- 수비 시 3-4-3 대형. 강한 전방 압박. 스리 톱은 줍은 간격으로 상대 MF 지역 제한.
- 3-4-3 수비 이후 스리 톱의 매우 빠른 공격 전환.
- 볼 탈취 당한 직후 매우 빠르고 적극적인 재압박.
- 윙백과 중앙 MF의 기동력으로 세컨볼 탈취.

## SQUAD

## 포지션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고동민 | 34  | 3,310   | 38 | 8   |
|     | 손정현 | 2   | 198     | 2  | 1   |
|     | 이윤오 | 1   | 53      | 2  | 0   |

## 포지션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 DF  | 김범용  | 5   | 314     | 0  | 0  |
|     | 김영찬  | 8   | 554     | 0  | 0  |
|     | 박재환  | 30  | 2,862   | 2  | 0  |
|     | 우주성  | 28  | 2,206   | 0  | 3  |
|     | 이광선  | 11  | 907     | 0  | 0  |
|     | 이민기  | 16  | 604     | 0  | 0  |
|     | 이준재  | 29  | 2,182   | 2  | 1  |
|     | 이찬욱  | 7   | 596     | 1  | 0  |
|     | 정현욱  | 1   | 17      | 0  | 0  |
|     | 레오   | 11  | 442     | 0  | 0  |
|     | 박민서  | 36  | 3,100   | 2  | 5  |
|     | 송홍민  | 36  | 3,116   | 1  | 3  |
|     | 이강희  | 34  | 2,864   | 0  | 0  |
|     | 이광진  | 16  | 824     | 0  | 4  |
|     | 이민혁  | 8   | 520     | 0  | 0  |
|     | 이지승  | 1   | 47      | 0  | 0  |
|     | 카스트로 | 34  | 2,228   | 6  | 4  |
|     | 권기표  | 12  | 419     | 0  | 0  |
|     | 글레이슨 | 34  | 2,329   | 13 | 2  |
|     | 모재현  | 30  | 2,238   | 6  | 6  |
|     | 미란징야 | 10  | 415     | 0  | 0  |
|     | 박민서  | 16  | 1,037   | 2  | 1  |



## SUMMARY

'뒷심'의 상징. 후반 30분 이후의 득점력이 대단했다. 2% 아쉬움만 채워내면 궤도에 오를 시간이 머지않은 거처럼 보인다.



감독 | 이영민

생년월일 | 1973. 12. 20

| 이영민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6 | 10 | 11 |
| 통산        | 68 | 52 | 66 |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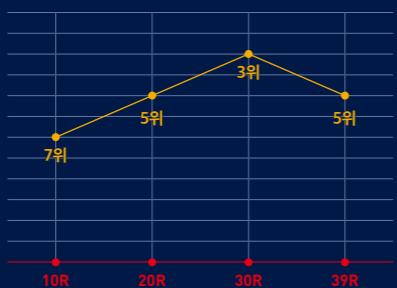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이범수 | 31    | 3,054   | 32 | 14  |
| 최첨원   | 37  | 3,568 | 37      | 12 |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도움  |
| DF    | 김현술 | 10    | 562     | 0  | 0   |
| 김규민   | 5   | 379   | 0       | 0  |     |
| 김선호   | 28  | 2,138 | 3       | 0  |     |
| 닐손주니어 | 36  | 3,492 | 5       | 1  |     |
| 박형진   | 34  | 1,575 | 1       | 1  |     |
| 서명관   | 29  | 2,590 | 0       | 0  |     |
| 유승현   | 11  | 942   | 1       | 0  |     |
| 이동희   | 32  | 3,088 | 0       | 1  |     |
| 이용혁   | 21  | 1,333 | 0       | 0  |     |
| 이오픈연  | 1   | 15    | 0       | 0  |     |
| 강재우   | 1   | 48    | 0       | 0  |     |
| 김준형   | 10  | 417   | 0       | 0  |     |
| 송진규   | 19  | 1,047 | 1       | 2  |     |
| 이정빈   | 18  | 920   | 3       | 2  |     |
| MF    | 조수철 | 15    | 758     | 1  | 2   |
| 최재영   | 25  | 1,977 | 1       | 1  |     |
| 카즈    | 35  | 3,359 | 1       | 3  |     |
| 김규민   | 10  | 204   | 1       | 0  |     |
| 김보용   | 11  | 512   | 0       | 0  |     |
| 김호남   | 27  | 1,761 | 2       | 2  |     |
| 루페타   | 15  | 919   | 1       | 2  |     |
| 박호민   | 20  | 504   | 2       | 1  |     |
| 안재준   | 22  | 1,492 | 11      | 4  |     |
| FW    | 이의형 | 23    | 1,276   | 4  | 2   |
| 정희웅   | 13  | 1,175 | 0       | 0  |     |
| 추정호   | 1   | 57    | 0       | 0  |     |
| 카릴    | 15  | 845   | 2       | 0  |     |
| 하모스   | 20  | 1,074 | 2       | 3  |     |
| 한지호   | 17  | 992   | 2       | 2  |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6.6세 | 4th | 52회[10th] | 1회 |

## PLAYER STATS

|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안재준   | 11   | 19  | 6.8  |
| 닐손주니어 | 5    | 10  | 3.0  |
| 이의형   | 4    | 8   | 3.4  |
| 도움    | 키пас | 크로스 |      |
| 안재준   | 4    | 14  | 26   |
| 하모스   | 3    | 20  | 38   |
| 카즈    | 3    | 26  | 64   |

##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6승 9무 11패



## 주요 포메이션 | 3-4-3



KEY FEATURES 영상 보기 &gt;



## FC 안양

## SUMMARY

'경기 외부 요소로 어려움이 많았던 2023년이었다. 6위를 기록한 게 신기할 정도. 평균 연령이 27.6세로 K리그2에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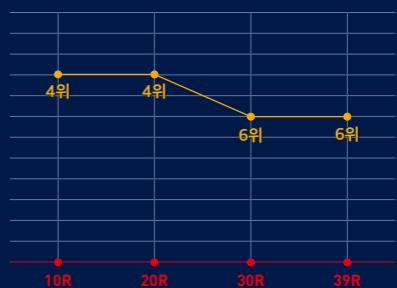


감독 | 이우형

생년월일 | 1966. 02. 02

| 이우형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2      | 15 | 9 | 12 |

##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5승 9무 12패



## 주요 포메이션 | 3-2-4-1



KEY FEATURES 영상 보기 &gt;

## AVERAGES

## 점유율



## 패스 분포





## SUMMARY

'발디비아'라는 괴물을 낳은 시즌. 국내 선수 중에서는 하남의 생산력이 뛰어났다. 악해지는 시 간대가 끊히 없는 게 강점이었다.



감독 | 이장관

생년월일 | 1974. 07. 04

| 이장관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6 | 5  | 15 |
| 통산        | 18 | 17 | 24 |

##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6승 5무 15패



## 주요 포메이션 | 4-4-2



## SUMMARY

'김포와 닮은 팀. 사실 극단적 수비만 따지면 김포보다 더했다. 필요하면 백 세븐까지 세워 상대의 공격 전술을 무용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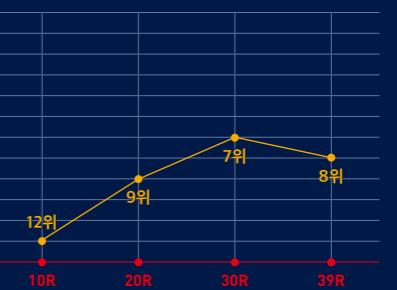


감독 | 최윤경

생년월일 | 1962. 04. 21

| 최윤경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3  | 13  | 10  |
| 통산        | 144 | 147 | 137 |

##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3승 13무 10패



## 주요 포메이션 | 4-4-2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김달솔  | 10  | 936     | 15 | 0   |
|     | 안준수  | 18  | 1,769   | 26 | 6   |
|     | 조성빈  | 9   | 99      | 2  | 0   |
|     | 최봉진  | 8   | 749     | 13 | 1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고태원  | 20  | 1,870   | 3  | 0   |
|     | 김수범  | 25  | 2,184   | 0  | 1   |
|     | 김현준  | 3   | 167     | 0  | 0   |
|     | 박성결  | 6   | 219     | 0  | 0   |
|     | 신일수  | 3   | 180     | 0  | 0   |
|     | 아스나위 | 26  | 1,967   | 0  | 2   |
|     | 여승원  | 12  | 979     | 2  | 0   |
|     | 유지하  | 20  | 1,922   | 2  | 0   |
|     | 이규혁  | 21  | 1,785   | 1  | 1   |
|     | 최희원  | 13  | 1,197   | 0  | 0   |
|     | 박태용  | 10  | 549     | 2  | 1   |
|     | 유혜이  | 34  | 2,636   | 1  | 2   |
|     | 이석현  | 10  | 485     | 0  | 1   |
|     | 이후권  | 23  | 1,589   | 0  | 1   |
|     | 장성재  | 18  | 1,570   | 0  | 0   |
| MF  | 전승민  | 9   | 376     | 0  | 0   |
|     | 정호진  | 6   | 284     | 1  | 0   |
|     | 조지훈  | 25  | 1,709   | 0  | 0   |
|     | 김건오  | 7   | 239     | 1  | 0   |
|     | 노건우  | 28  | 1,497   | 3  | 1   |
|     | 미카치  | 9   | 372     | 1  | 0   |
|     | 발디비아 | 36  | 3,231   | 14 | 14  |
| FW  | 시모비치 | 8   | 463     | 0  | 1   |
|     | 이용재  | 9   | 433     | 3  | 0   |
|     | 이준호  | 4   | 144     | 1  | 1   |
|     | 임한율  | 9   | 462     | 1  | 2   |
|     | 지상욱  | 12  | 321     | 1  | 2   |
|     | 최성진  | 18  | 821     | 0  | 1   |
|     | 추상훈  | 25  | 827     | 3  | 1   |
|     | 플라나  | 36  | 2,731   | 8  | 7   |
|     | 하남   | 31  | 2,021   | 7  | 3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6.7세 | X  | X2    | X  |

3rd 61회(7th) 3회 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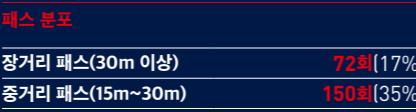
## PLAYER STATS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발디비아 | 14    | 42   |
| 플라나  | 8     | 29   |
| 하남   | 7     | 28   |
| 도움   | 키пас스 | 크로스  |
| 발디비아 | 14    | 56   |
| 플라나  | 7     | 24   |
| 하남   | 3     |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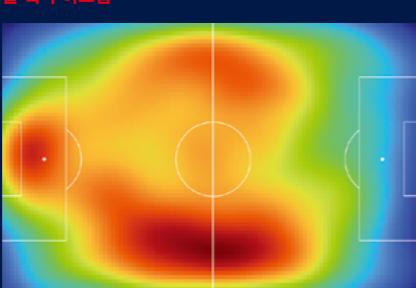
229 100 11

## AVERAGES

## 점유율



## 볼 획득 히트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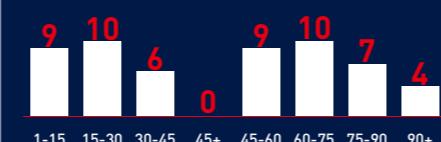


## TEAM STATS

## 득점 분류



## 시간대별 특징



## 슈팅 시퀀스

362개(4th)

슈팅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2.9회(4th)

슈팅 시퀀스 비율

7.3%(6th)



## 성남 FC

## SUMMARY

평균적으로 4-1-4-1 대형을 세워 적에게 맞섰다. 베테랑 이종호가 7골로 분전했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도 9골을 성공시켰다.



감독 | 이기형

생년월일 | 1974. 09. 28

| 이기형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1 | 11 | 14 |
| 통산        | 26 | 37 | 37 |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김영광  | 17    | 1,642   | 24 | 5   |
| 최필수 | 20   | 1,940 | 26      | 6  |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DF  | 강의빈  | 24    | 2,165   | 1  | 0   |
| 국태정 | 2    | 200   | 0       | 0  |     |
| 김지수 | 1    | 64    | 0       | 0  |     |
| 김진래 | 25   | 2,238 | 0       | 4  |     |
| 김홍민 | 12   | 724   | 0       | 0  |     |
| 양시후 | 6    | 150   | 0       | 0  |     |
| 유선  | 7    | 548   | 0       | 0  |     |
| 이상민 | 23   | 2,124 | 0       | 0  |     |
| 이지훈 | 23   | 1,471 | 0       | 1  |     |
| 장효준 | 5    | 303   | 0       | 0  |     |
| 정승용 | 14   | 1,190 | 1       | 0  |     |
| 조성옥 | 33   | 2,871 | 4       | 0  |     |
| 페트릭 | 22   | 1,945 | 2       | 0  |     |
| MF  | 권순현  | 26    | 2,030   | 1  | 0   |
| 김현태 | 13   | 947   | 0       | 1  |     |
| 문창진 | 6    | 343   | 0       | 0  |     |
| 박상혁 | 25   | 1,544 | 1       | 5  |     |
| 박지원 | 19   | 1,213 | 2       | 0  |     |
| 박태준 | 20   | 1,754 | 1       | 2  |     |
| 신재원 | 13   | 598   | 2       | 0  |     |
| 양태양 | 6    | 129   | 1       | 0  |     |
| 이재원 | 19   | 1,640 | 0       | 0  |     |
| 장영기 | 5    | 94    | 0       | 0  |     |
| FW  | 가브리엘 | 11    | 1,000   | 4  | 3   |
| 김원준 | 9    | 233   | 1       | 0  |     |
| 데닐손 | 20   | 749   | 3       | 0  |     |
| 심동운 | 12   | 661   | 1       | 3  |     |
| 이종호 | 28   | 1,824 | 7       | 3  |     |
| 이준상 | 12   | 488   | 0       | 1  |     |
| 전성수 | 17   | 743   | 0       | 2  |     |
| 정성호 | 25   | 1,385 | 2       | 2  |     |
| 진성욱 | 15   | 958   | 3       | 1  |     |
| 크리스 | 19   | 1,359 | 6       | 0  |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6.2세 | 7th | 69회(4th) | 3회 |

## PLAYER STATS

|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이종호  | 7  | 17  | 5.4  |
| 크리스  | 6  | 13  | 3.2  |
| 가브리엘 | 4  | 14  | 1.8  |
|      | 도움 | 키래스 | 크로스  |
| 박상혁  | 5  | 26  | 99   |
| 김진래  | 4  | 13  | 93   |
| 이종호  | 3  | 14  | 26   |

##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1승 11무 14패



## 주요 포메이션 | 4-1-4-1



## AVERAGES



## TEAM STATS



## 시간대별 특징



## KEY FEATURES

- 빌드업 시 4-2-3-1. 공격형 MF 넓은 활동 범위. 2선과 3선 넓게 움직이며 볼 받아주는 역할.
- 공격 2선 선수들의 적극적 연계 성향. 항상 상대 라인 사이에서 볼 받으려는 시도.
- 3-4-3 공격 시 양쪽 윙백 높은 위치. 윙백의 넓은 폭으로 적극적 측면 지역 활용.
- 가브리엘·크리스 등 외국인 선수들의 적극적 측면 솔로 플레이 시도.
- 수비 시 4-4-2. 톱 라인과 중앙 MF 쪽에서의 압박 시도로 빌드업 제한.
- DF 라인에서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내지 못하는 경향.
- 상대 후방 볼 소유 시 중원 밀도가 낮은 문제.



## 충남 아산 FC

## SUMMARY

'꾸준한 골 생산에 애를 먹었다. 전반과 후반의 초반 득점력은 좋으나 막판엔 힘이 빠졌다.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노출한 시즌.



감독 | 박동혁

생년월일 | 1979. 04. 18

| 박동혁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2 | 6 | 18 |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문현호 | 13    | 445     | 2  | 1   |
| 박주원 | 15  | 1,422 | 21      | 3  |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도움 |
|-----|-----|-------|---------|----|----|
| DF  | 강준혁 | 17    | 1,250   | 0  | 1  |
| 김성주 | 16  | 1,076 | 0       | 1  |    |

| MF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도움 |
|------|-----|-------|---------|----|----|
| 김성우  | 10  | 661   | 1       | 0  |    |
| 배수용  | 4   | 186   | 0       | 0  |    |
| 이은범  | 28  | 2,658 | 1       | 0  |    |
| 이재성  | 7   | 664   | 1       | 0  |    |
| 이학민  | 25  | 1,577 | 0       | 1  |    |
| 이호인  | 24  | 2,048 | 0       | 0  |    |
| 장준영  | 20  | 1,820 | 2       | 0  |    |
| 조윤성  | 31  | 2,834 | 0       | 1  |    |
| 권성현  | 12  | 317   | 0       | 1  |    |
| 김강국  | 36  | 3,481 | 3       | 2  |    |
| 김민석  | 4   | 152   | 0       | 0  |    |
| 김종국  | 10  | 450   | 0       | 0  |    |
| 김택근  | 3   | 93    | 0       | 0  |    |
| 김해성  | 14  | 904   | 0       | 0  |    |
| 박세직  | 33  | 3,191 | 1       | 5  |    |
| FW   | 강민규 | 30    | 1,975   | 6  | 1  |
| 고무열  | 9   | 224   | 1       | 0  |    |
| 김승호  | 24  | 1,373 | 3       | 1  |    |
| 두아르테 | 25  | 1,335 | 4       | 1  |    |
| 박대훈  | 18  | 1,014 | 6       | 4  |    |
| 박민서  | 14  | 901   | 3       | 2  |    |
| 송승민  | 27  | 1,885 | 1       | 1  |    |
| 아픈자  | 12  | 672   | 1       | 0  |    |
| 이창훈  | 5   | 128   | 0       | 0  |    |
| 정성호  | 20  | 804   | 1       | 0  |    |
| 지언학  | 10  | 493   | 2       | 1  |    |
| 하파엘  | 16  | 555   | 1       | 1  |    |

<table border="



## 서울이랜드 FC

## SUMMARY

'배가 찾았다. 무승부 이상의 결과에 목말랐던 시즌이었다. 팀 경고는 도합 70회였는데 K리그2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



감독 | 박충균

생년월일 | 1973. 06. 20

| 박충균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10 | 5 | 21 |
| 통산        | 10 | 5 | 21 |

##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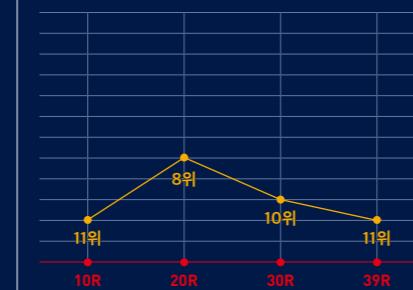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강정목 | 1   | 99      | 2  | 0   |
|     | 문정인 | 25  | 2,471   | 35 | 5   |
|     | 윤보상 | 6   | 590     | 12 | 1   |
|     | 주현성 | 4   | 388     | 5  | 1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김민규 | 31  | 2,963   | 0  | 1   |
|     | 박경민 | 7   | 275     | 0  | 0   |
|     | 박준영 | 3   | 228     | 0  | 0   |
|     | 이인재 | 25  | 2,277   | 0  | 3   |
|     | 이재익 | 21  | 1,846   | 0  | 0   |
|     | 이정문 | 7   | 246     | 0  | 0   |
|     | 조동재 | 14  | 853     | 0  | 1   |
|     | 차승현 | 23  | 1,651   | 3  | 1   |
|     | 한용수 | 4   | 187     | 1  | 0   |
|     | 황정우 | 2   | 46      | 0  | 0   |
|     | 황태현 | 14  | 897     | 0  | 0   |
| MF  | 곽상욱 | 7   | 322     | 0  | 0   |
|     | 김원식 | 27  | 1,743   | 0  | 0   |
|     | 박창환 | 22  | 1,112   | 0  | 0   |
|     | 브루노 | 30  | 2,226   | 6  | 2   |
|     | 서보민 | 25  | 1,834   | 0  | 0   |
|     | 유정완 | 30  | 2,387   | 4  | 1   |
|     | 이상민 | 36  | 3,181   | 0  | 2   |
|     | 이시현 | 22  | 1,219   | 3  | 1   |
|     | 초바사 | 17  | 1,199   | 1  | 0   |
| FW  | 김수안 | 13  | 556     | 0  | 1   |
|     | 김정환 | 12  | 550     | 0  | 0   |
|     | 박정인 | 17  | 1,293   | 1  | 0   |
|     | 박준영 | 6   | 175     | 0  | 0   |
|     | 반도안 | 9   | 436     | 0  | 0   |
|     | 변경준 | 32  | 2,012   | 3  | 4   |
|     | 송시우 | 19  | 1,028   | 2  | 0   |
|     | 이동률 | 20  | 1,206   | 2  | 0   |
|     | 호난  | 29  | 1,483   | 7  | 2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26.1세 | 8th | 70회(2nd) | 1회 |

## PLAYER STATS

|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호난  | 7  | 22  | 8.7  |
| 브루노 | 6  | 16  | 2.8  |
| 유정완 | 4  | 11  | 3.0  |
|     | 도움 | 키래스 | 크로스  |
| 변경준 | 4  | 17  | 89   |
| 이인재 | 3  | 7   | 6    |
| 호난  | 2  | 10  | 5    |

##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0승 5무 21패



## 주요 포메이션 | 4-4-2



KEY FEATURES 영상 보기 &gt;



## 안산그리너스

## SUMMARY

'윤주태의 개인 역량이 두드러졌다.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시간대는 후반 30분 이후였다. 경기 막판 집중력이 상당했다는 의미다.'



감독 | 임관식

생년월일 | 1975. 07. 28

| 임관식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2 | 2 | 8 |
| 통산        | 2 | 2 | 8 |

##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6승 7무 23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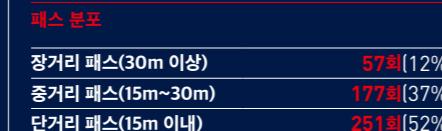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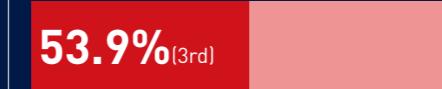
## 주요 포메이션 | 4-4-2



KEY FEATURES 영상 보기 &gt;

## AVERAGES

##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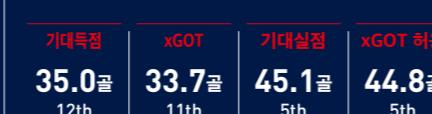


## 볼 획득 히트맵



## TEAM STATS

## 득점 분류



## 시간대별 특징



## KEY FEATURES

- 백 스리와 백 포 등 유연한 대형 운영. 폭넓은 포메이션 활용 범위.
- 공격 시 타깃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 1선으로 빠른 볼 투입 통한 득점 기회.
- 빌드업 시 양쪽 측면 DF의 자유로운 폭 선정.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오가며 빌드업 옵션.
- 수비 시 4-4-2 대형. 중원 룬 라인으로 적극적 채널링.
- DF와 MF 라인 사이 지역의 하프스페이스 지점을 계속 노출하는 문제.
- 상대 중원 라인 선수의 후방 침투에 취약한 문제.

## PPDA(압박 강도)



## 공격지역 획득



## 활동량(km)



## 스프린트(회)



## SQUAD

## 포지션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김선우 | 1   | 96      | 3  | 0   |
| DF  | 이승빈 | 35  | 3,478   | 69 | 5   |
| MF  | 고대규 | 17  | 1,329   | 1  | 0   |
| FW  | 김대경 | 14  | 907     | 0  | 0   |

## 포지션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 DF  | 김재경 | 32  | 3,116   | 0  | 1  |
| MF  | 김정호 | 31  | 2,803   | 1  | 2  |
| FW  | 김채운 | 18  | 1,138   | 0  | 1  |

## 포지션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 DF  | 박준영 | 1   | 51      | 0  | 0  |
| MF  | 신민기 | 1   | 53      | 0  | 0  |
| FW  | 이건웅 | 3   | 110     | 0  | 0  |
|     | 이준희 | 19  | 998     | 0  | 1  |

## 포지션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 | --- | --- | --- | --- | --- |





<tbl\_r cells="6" ix="5" maxcspan



# 천안시티FC

## SUMMARY

'K리그2 첫 시즌이었다. 배움이 컸던 시간. 그래도 모따와 파울리뇨 콤비가 18골을 합작해냈 다. 신형민 같은 노익장도 중심을 잡았다.



감독 | 박남일

생년월일 | 1970. 05. 04

| 박남일 감독 전적 | 승 | 무  | 패  |
|-----------|---|----|----|
| 2023      | 5 | 10 | 21 |
| 통산        | 5 | 10 | 21 |

## SQUAD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실점 | 무실점 |
|-------|------|----------|---------|----|-----|
| GK    | 김민준  | 28       | 2,744   | 45 | 5   |
|       | 김효준  | 2        | 203     | 7  | 0   |
|       | 임민혁  | 6        | 597     | 10 | 1   |
| 포지션   | 이름   | 출장수      | 출장시간(분) | 득점 | 도움  |
| DF    | 김대생  | 3        | 105     | 0  | 0   |
|       | 김주현  | 14       | 1,008   | 0  | 0   |
|       | 김주환  | 31       | 2,740   | 0  | 2   |
|       | 김창수  | 13       | 319     | 0  | 0   |
|       | 문건호  | 1        | 35      | 0  | 0   |
|       | 박준강  | 23       | 1,727   | 0  | 1   |
|       | 신원호  | 11       | 503     | 0  | 0   |
|       | 오윤석  | 27       | 1,776   | 1  | 1   |
|       | 오현교  | 25       | 1,471   | 1  | 0   |
|       | 이광준  | 26       | 2,189   | 1  | 1   |
|       | 이재원  | 28       | 2,210   | 0  | 0   |
|       | 차오연  | 23       | 1,797   | 0  | 0   |
| MF    | 김성주  | 10       | 622     | 0  | 0   |
|       | 김세윤  | 5        | 213     | 0  | 0   |
|       | 김현중  | 19       | 1,430   | 2  | 0   |
|       | 다미르  | 23       | 1,312   | 1  | 0   |
|       | 신형민  | 17       | 1,640   | 0  | 0   |
|       | 윤용호  | 28       | 1,450   | 2  | 2   |
|       | 이민수  | 19       | 1,260   | 1  | 0   |
|       | 장백규  | 24       | 1,257   | 2  | 3   |
|       | 최상현  | 2        | 76      | 0  | 0   |
|       | 한재훈  | 4        | 104     | 0  | 0   |
| FW    | 김종민  | 25       | 1,010   | 1  | 0   |
|       | 모따   | 35       | 2,626   | 10 | 1   |
|       | 바카요코 | 12       | 1,095   | 0  | 0   |
|       | 이석규  | 25       | 1,488   | 2  | 0   |
|       | 이찬협  | 7        | 234     | 0  | 0   |
|       | 정석화  | 19       | 1,515   | 0  | 2   |
|       | 파울리뇨 | 19       | 1,758   | 8  | 5   |
|       | 한석희  | 8        | 241     | 0  | 0   |
|       | 허승우  | 7        | 205     | 0  | 0   |
| 평균 연령 | 경고   | 경고 2회    | 퇴장      |    |     |
| 26.5세 | 5th  | 70회(3rd) | 1회      | 0회 |     |

## PLAYER STATS

|      | 득점 | 유효슛 | 기대득점 |
|------|----|-----|------|
| 모따   | 10 | 26  | 7.0  |
| 파울리뇨 | 8  | 23  | 4.9  |
| 윤용호  | 2  | 11  | 1.0  |
|      | 도움 | 키패스 | 크로스  |
| 파울리뇨 | 5  | 33  | 70   |
| 장백규  | 3  | 23  | 92   |
| 윤용호  | 2  | 14  | 67   |

KEY FEATURES 영상 보기 &gt;

###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5승 10무 21패



### 주요 포메이션 | 4-1-4-1



## AVERAGES

### 점유율

45.7% (12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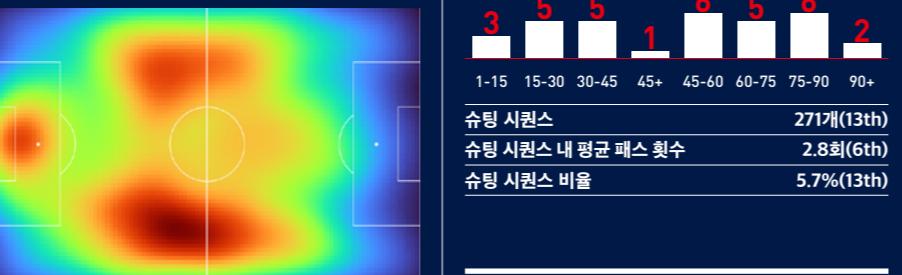
43.9% (11th) | 44.5% (13th) | 51.7% (11th)

422회 (10th) | 78.4% (10th) | 5.6회 (12th)

### 패스 분포

|                 |            |
|-----------------|------------|
| 장거리 패스(30m 이상)  | 61회 (15%)  |
| 중거리 패스(15m~30m) | 150회 (35%) |
| 단거리 패스(15m 이내)  | 211회 (50%) |

### 볼 획득 히트맵



## TEAM STATS

### 득점 분류



|            |             |          |
|------------|-------------|----------|
| 2골 (6%) PK | 1골 (3%) 자책골 | 33골 총 득점 |
|------------|-------------|----------|

|                   |                   |                  |                     |
|-------------------|-------------------|------------------|---------------------|
| 기대득점 28.8골 (13th) | xGOT 27.8골 (13th) | 기대실점 45.2골 (4th) | xGOT 허용 53.9골 (2nd) |
|-------------------|-------------------|------------------|---------------------|

### 시간대별 특징



### KEY FEATURES

- 빌드업 시 4-3-3과 4-4-2. 텁 활용 시 2가지 형태. 모따의 타깃맨. 파울리뇨의 연계 옵션.
- 빌드업 시 중원 잘 활용하지 않는 경향. 1선으로 빠른 전개.
- 측면 크로스 시 모따 적극 활용. 모따 먼 쪽 수비 라인에 위치해 경합하는 성향.
- 수비 시 4-4-2. MF 라인에서 강한 대인 마크 성향.
- 라인 사이 지역으로 볼 투입 허용하는 문체. MF의 인지 부족한 경향.
- 마지막 15분에서 가장 높은 실점.



## 2023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3 K리그 기술보고서

발행처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 BEPRO11

기획 | K리그 TSG

편집 및 디자인 | 그래픽레이시오(studio-ratio.com)

인터뷰 및 교정 | 조남기 기자

사진 | FApotos

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 2023년 12월 29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FApotos가 제공한 것으로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BEPRO11의 K리그 부가 기록 기준에 따릅니다.



2023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3 K리그 기술보고서

